



아름다운
세상

2004 전국평협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아름다운

세상

2004 전국평협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4	격려말씀 - 염수정 주교
6	책머리에 - 손병두 회장
9	2004 평협활동
37	평신도주일 강론
41	평신도주일 포스터
42	전국평협 소식 2004 제3차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제2차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가톨릭대상 시상 평협, 불교 신도회와 교류모임
50	각 교구 평협 활동 서울평협 대전평협 인천평협 수원평협 청주평협 마산평협 광주평협 전주평협 제주평협
63	단체소식 마리아 사业协会 서울 세나투스
65	특집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한 목소리 한국평협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가톨릭 교육재단 협의회 기자회견 주교회의 반대성명 종교지도자협의회 반대성명
73	교회 소식 2004 도농한마당 잔치 동정마리아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 반포 150주년 교황, 성체성사의 해 교서 발표 교황, 세계성체대회 화상 메시지

	2005년도 공동사목교서 발표
	주교회의 가을총회
	주교 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위원장 확정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세미나 개최
	레지오 마리에 전문위원회 발족
81	전국평협 2005년도 사업계획안(각 분과위원회)
95	새 교황대사 부임 - 인터뷰
98	아가운동
	아가운동 활동과 성과
	표장 해설
	우리의 결의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
	사진 공모전
	강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 손병두 회장
	명설교 명법문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 손병두 회장
	칼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 손병두 회장
	친교의 영성을 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 최홍준 사무총장
131	의정부 교구 소개
	의정부 교구의 탄생
	이한택 주교 인터뷰
134	회원단체 탐방 - ME
139	특별소개
	오름회와 제3기 인생 - 오덕주 부회장
146	나의 신앙 - 제주평협 김항원 회장
149	자료
	교황, 2005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요약문
	교황, 2005년 사순시기 담화
	FABC 제8차 총회 메시지
158	동정
159	전국평협 임원 명단



평신도사도직과 ‘평협’을 생각하며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제호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서 회보를 펴는데 대해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평신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평신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성직자들과 함께 ‘하느님 백성’을 이루면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성세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신자가 곧 평신도들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즉 평신도가 성직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가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에 따라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1964),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1963),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1965) 등을 통해 공의회는 평신도의 특수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평신도는 사회의 누룩으로서 세상에서 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질서를 개선하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초기 프랑스인 사제들이 사목할 때 신자가 도우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이고, 신부님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공소가 형성될 때 공소 회장이 생겨났고, 공소가 모여서 본당이 형성됐으며, 이렇게 해서 교구와 전국 사도직 단체에 이르기까지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에 공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창설기의 평신도 역할이 지대했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신이 지역 교회에까지 파급이 된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가톨릭 평신도사도직 중앙협의회'가 발족했으며, 이 때가 오늘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시발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평협이 이룩해놓은 성과와 교회에 대한 기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회가 끝난 지 4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평신도 사도직과 사도직 단체들에 대한 점검이랄까,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교회의 2004년 춘계 정기총회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에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회의의 본질과 기능 등을 분명히 하고, 성서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회의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하여 평신도의 고유한 은사와 교회 내 역할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 연구결과를 제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는 당면과제로 평협 관련 각 교구 책임자와 평신도 대표자들이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을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4년 11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교회 구조에서 본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거론된 의제들 가운데 핵심부분이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인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날 함께 공부하며 서로 나누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협의 정체성은 교회론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하나다.

셋째, 모든 단체나 사도직 단체는 주교의 협력자이다.

넷째, 평협은 '사도직단체협의회' 라야 한다. 단체들이 회원이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본당 차원의 구성원을 누구로 할지는 풀어야 할 과제이다 (본당 총회장이나? 본당 평협 회장이나?).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법 정신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세미나의 골자였습니다. 본당을 사도직단체로 보는 관행이 30년간 계속되어 바꾸려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본모습대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각 교구 평협과 전국평협 관계자들, 특히 성직자와 함께 평신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운동을 벌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회보로 내놓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맞은 지 이미 한달을 넘어섰지만 그래도 해마다 맞는 1월은 언제나 감회가 새롭고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새롭게 주어진 올 한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며 장식해 나갈까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의 설렘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든 면에서 생동감 넘치는 한해를 맞이하시길 빌며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좀더 나아지시길 기원해 봅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협은 지난 한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운동(아가운동)을 펼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이제 좀더 성숙한 단계의 운동을 펼쳐나갈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전국평협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면서 시작한 아가운동은 그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에 까지 파급돼 많은 신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자신의 삶과 생활 속에서 늘 생각해 보게 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가운동 실천 등산대회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 공모전, 가족사랑 평화독서 감상문대회, 3대가족이 식당을 함께 이용하면 우대를 해주도록 한 3대가족사랑 실천운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무엇보다 아가운동의 핵심은 밤 10시에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대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성서”, “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아가운동이 ‘기성대’ 운동으로 우리 생활 안에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 운동이 전국평협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각 교구 본당으로, 각 단체로 확산되어 가정을 살리자는 우리의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 동안 이 운동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 계시는 각 교구 회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의 협조와 관심이 컸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더 많은 협조와 관심에 힘입어 좀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닭띠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우리 사회에 어둠을 걷어내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어둠과 침묵의 복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메아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에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북한동포와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평협에서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7월 3일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평화콘서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도 각 교구로 확산되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어 복녘 땅에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가 하루 빨리 허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협조직의 설립목적과 목표는 선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고 그러한 사도직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교구 평협과 전국 차원의 한국평협은 앞으로 이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복음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을유년 새해 아침에 맞이한 상큼한 그 마음으로 2005년 한해를 살아가시길 빌며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생기 넘치고 사랑 넘치는 한해로 장식되기를 바랍니다.

손병두 요한보스코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2004



평 / 협 / 활 / 동



⋮ 2004년도 제37회 전국평협 정기총회에서 염수정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주교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2004. 3. 13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2004년도 제37회 전국평협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4. 3. 13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2004년도 제37회 전국평협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손병두 회장과 전임 여규태 회장, 염수정 주교, 정월기 지도신부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4. 3. 13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2004년도 제1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마산교구의 소개와 일정을 듣고 있다(2004. 3. 13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제1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 참석자들이 본회의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04. 5. 22-23 / 마산교구 창원 성산 복지관)



† 마산교구 창원 성산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제1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에서 각 교구에서 참석한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2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

⋮ 참석자들이 본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04. 8. 28-29 / 부산교구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 부산교구 정하상 영성관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의에 참가한 각 교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부산교구의 사회사목에 대한 소개를 영상과 함께 듣고 있다.



... 한국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본부, 한국천주교 평
신도사도직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도농한
마당 잔치 추수감사
미사(2004. 11. 7 /
대전교구 갑천문치)



... 교구별 농수산물
홍보



... 놀이마당 중 함께
새끼를 끄는 부자



‡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개최된 전국평협 제3차 상임위원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04. 11. 26-28 /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센터).



‡ 상임위원회의 장면(2004. 11. 27)



⋈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의 특강(2004. 11. 26)



⋈ 황사영 순교자 부인 정난주 마리아 모소 순례(2004. 11. 28)



...
사학관련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2004. 10. 29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



가톨릭 대상



⚡ 제 21회 가톨릭대상 사랑부문 대상 수상자 정숙희 자매에게 염수정 주교가 시상하고 있다(2004. 12. 28 /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 사랑부문 공동수상자인 광주 대교구 가톨릭 운전기사사도회를 대표해서 박종천 회장이 수상하고 있다.



‡ 특별상에 방수정 데레사, 송수남 데레사 자매가 수상하고 있다.



‡ 가톨릭대상 수상자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 정월기 평협 지도신부와 평협 고문, 회장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평협 ...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 제1회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에 변기영 신부(수원교구 천진암성지 주임)가 '북한동포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하여 한국천주교회가 할 일'이라는 주제를 강의하고 있다 (2004. 10. 21 / 명동성당 코스트홀).



⋮ 정월기 지도 신부의 마침기도와 강복



탈북자 이순자씨의 체험발표 ...

서울평협 ... '아기운동 실천 가족사랑 등반대회'



‡ 등반대회 참가자들이 등반전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2004. 10. 9 / 삼성산).



‡ 종로구청 회의실에서 3대 가족 사랑 실천 운동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04. 7. 20).

10.9(토) 삼성산 성지



† 염수정 총대리 주교의 미사집전



† 정월기 지도신부가 최대 가족참가상을 시상하고 있다.



... 제2강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하신 김수환 추기경님

하상신학대학 제 1강의 '나는 누구 ...
이며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강
의하신 정진석 대주교님



... 제 3강의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를 강의하신 최
창무 대주교님



→ 하상신앙대학의 자원봉사자들



→ 강의 장소인 성당으로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강자들의 모습



→ 12주간의 하상신앙대학 수강자들이 강사의 강의내용에 집중하는 모습

서울평협 ...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제1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공모전

... 2004. 12. 10(금)~18(토) 전시



↑ 전시장 풍경



↑ 대상수상작 : 홍정숙 작 '엄마품에서'



‡ 우수상 : 김순규 작 '가족 1'



‡ 고숙자 작 '전수'

대전평협



⊚ 베티성지에서 대전교구 평협 첫 상임위원 피정(2004. 6. 12-13 / 베티성지)



⊚ 가톨릭봉사자 10주 과정 개설(2004. 9. 7-11, 30 / 10주간)



⋮ 인천교구 순교자 현양대회(2004. 9. 7 / 강화 갑곶돈대 성지)

수원평협



‡ 3/4분기 수원교구 평협 상임위원회의 안건 토의

청주평협



‡ 제5회 청주교구 어른신 게이트볼 대회(2004. 10. 9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 마산교구 구조봉사단 발대식(2004. 6. 26 / 마산교구청 4층 회의실)



⌘ 마산교구 레지오 마리에 탄생 50주년 기념 신앙대회(2004. 5. 26)



⋈ 광주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구성을 위한 연수회(2004. 7. 3)



⋈ 단체 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연수회(2004. 7. 10 / 광주 평생교육원)

전주평협



⌘ 전주교구 평협 제단체장 및 임원 연수(2004. 9. 2 / 전주 가톨릭센터 3층 성당)



⌘ 요한 루갈다제에서 전주 가톨릭센터 추진을 선포하시는 이병호 주교님
(2004. 10. 2 / 치명자산 성지광장)



⌘ 제주교구 가정대회에 참가한 신자들(2004. 9. 5 / 한라 체육관)



제주평협 김항원 회장 인사말씀 ...



†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특강



평신도봉사자 교육 ...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시다

1. 서른일곱 번째 평신도주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가 정한 서른일곱 번째 평신도주일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평신도 모두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다 함께 감사하며 스스로 경축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를 통해서 평신도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신도들이 사도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발족시킨 것이 36년 전인 1968년의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도좌(使徒座)를 중심으로 하면서 보편교회와 일치하는 가운데, 지역교회 목자들이신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때부터 해마다 평신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2. 세상 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

오늘 평신도주일을 맞이해서 평신도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하며,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또는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직(使徒職)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 왕국을 펼치도록 교회에 맡겨진 사도적(使徒的)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다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이미 사도직에 불림을 받았으며, 우리 평신도들은 ‘주님의 포도원’인 각자 삶의 일터에서 사도직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세상 복음화의 최

일선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은 220년 전 평신도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앞장서서 교회 창설의 주역이 됐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며 이 땅에 신앙을 지키고 키워온 자랑스런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정신을 되살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반그리스도교적 문화, 죽음의 문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종교다원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순교정신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3. 단체사도직과 평협

“평협이 무엇하는 단체인가?”라고 물어 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평협은 한 마디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협의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군중교구를 포함한 열여섯 개 교구 가운데 신설 의정부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 평협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교구 평협과 전국 단위의 여러 사도직 단체가 모여 전국 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입니다. 이를 줄여서 ‘전국평협’이라고 부릅니다.

전국평협에서는 분기별로 각 교구 평협 대표와 전국 단위의 사도직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수행해온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평가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며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교 안에서도 교회의 사도직을 수행할 수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단체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는 다양하며, 교회가 개인적이 아닌 공동체로서 불렸기 때문에 단체 사도직은 교회의 근본정신에도 부합됩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발족 이후 3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단체사도직을 수행해 오면서 103위 성인들의 시성운동과 신뢰회복을 위한 내태이오 운동 전개, 가톨릭대상 제정과 시상,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운동, 우리 상품 쓰기와 평신도제자리 찾기 운동, 그리고 공명선거 캠페인도 적극 벌여왔습니다.

4.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4년 3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

장단 구성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구현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이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4천명 이상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서 평협은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기도를 바치고, 성서를 읽고 복음을 실천하며, 가정성화를 위해서 사도직 단체들과 협력하는 한편 생명문화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아울러 다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느님 백성들의 참된 가정은 어떠한 야 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가정은 더욱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는 학교”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목헌장’ 52).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하고, 어린 아이들과 병자들, 노인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매일 서로 봉사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운데 가정이 사랑의 학교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해질 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 또한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입니다.

5. 평협 활동의 활성화

이제 우리 평협은 사회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주교 신자 수는 전체 인구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자 증가율은 더디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 쉬는 신자는 늘어나고 청년 신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현상을 분석, 연구하여 적절한 사목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실 생활과 직결되는 실업자 문제와 환경문제, 생명보호와 남북문제, 안보문제, 사립학교 관련 법개정문제 등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해서 가톨릭 신앙인의 입장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대응하고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복음화문제 등에 대해서도 평협이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평신도주일에는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위한 봉헌금까지 교회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봉헌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이 헌금은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쓰이고, 나머지 일정한 몫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로 보내 전국평협 활동의 기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평신도주일 헌금 금액은 너무나 적어서 평협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평신도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다는 뜻으로 봉헌에 임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교구평협과 전국평협이 앞장서서 해주는 일에 나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들으신 복음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루가 21,17-19)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14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제37회 평신도 주일

2004년 11월 14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4년도 제 3차 상임위원회의 제주에서 3일간 개최

한국평협 2004년도 제 3차 상임위원회의가 11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열려 새해에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평협 사상 처음으로 부부동반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주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로부터 ‘제주도’ 전반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제주교구 소개 비디오 시청에 이어 가정사목을 주제로 한 제주교구 양영수 신부의 강의를 들었다.

첫날 저녁 가정생활 체험 사례발표 순서를 진행한 상임위원회의는 한국ME 대표부부인 장무웅·김정희씨와 포콜라레운동 새가정 이동훈 요한·권미옥 마리아 아마따부부가 혼인성사 안에서 가정성화를 이룩해나간 사례를 들려주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27일 오전 제주교구 가정사목사례 소개(제주교구 가정상담실 변수운 수녀)에 이어 공동 사목교서 초안 검토에 참여한 한국평협 최홍준 사무총장이 2005년도 주교회의 가정에 관한 공동사목교서 “사랑과 생명의 터전”을 소개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교회를 주제로 오혜정수녀(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장)의 강의와 북한 이탈주민 정현무씨의 체험담 소개가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특별시를 지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이며 북한구원운동 상임회장인 김상철 변호사의 특강 “국내의 정세와 성서적 세계관”과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가 조사, 분석한 “한국 천주교 여성사목 방향정립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를 가톨릭대학교 연구위원 강영옥 박사로부터 들었다.

26일과 27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손병두 회장 주제로 진행된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에서는 각 교구별 평협 현황소개와 각 분과별 사업보고를 듣고 전국평협의 새해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토의와 2004년도 예산 항목간 변경을 승인했다.

각 교구 평협회장단과 단체 대표, 전국평협과 제주평협 임원 및 배우자들로 구성된 이번 회의의 참석자들은 27일 오후와 28일 오전 한림공원 산책과 신유박해순교자 황사영 부인 정난주 묘소와 김대건 신부 표착지 등을 돌아보는 성지순례 행사도 가졌다. 다음은 제3차 상임위원회의 결의문 전문이다.

◆ 2004년 제3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4년 - 제3차 상임위원회회의를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부부 동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가정 세미나를 겸한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구현을 위한 운동을 새해에도 계속 전개한다.
2. 우리는 주교회의가 대림 제1주일을 기해 발표한 가정을 위한 교서- “가정, 사랑과 생명의 터전”의 정신을 따르고 그 내용을 실천한다.
3. 우리는 북한 이탈주민을 돕고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4. 우리는 청소년층, 특히 대학사회의 복음화에 역점을 두고 활동한다.
5. 우리는 여성사목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은다.
6. 2000년이후 청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가정대회를 전국 규모의 행사가 되도록 각 교구 평협이 노력한다.
7. 성체성사의 해를 좀더 뜻있게 지내는 방안을 각 교구평협과 운동 단체들이 강구하고 실행한다.
8. 각 지역에서 역량 있고 존경받는 인사를 한국평협 원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9. 우리는 2004년도 한국평협 예산 중 변경요인이 발생한 부분의 항목 간 변경을 승인하였다.

2004년 11월 28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자 일동

· 제2차 상임위원회회의 부산에서 열려

한편 2004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회의가 5월 22일과 23일 마산교구 창원 성산복지회관에서 열린데 이어 8월 28일과 29일에는 부산교구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두 번째 상임위원회회의가 열렸다. 다음은 2차 상임위원회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 전문이다.

◆ 2004-제2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2004-제2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 참석자들은 2004년 8월28일부터 29까지 부산교구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먼저 가정과 교회와 주님의 포도원인 삶의 일터에서 성화되고 성덕을 쌓음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평신도 사도직을 솔선수범하는 표양을 보인다.
2. 우리는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임을 깊이 깨닫고 초대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선포한 것을 기록한 성서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실천하며 선포하는데 앞장선다.
3. 우리는 각 교구장들이 가정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목지침에 따라 지난3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추진기로 결의한 '아가운동'을 각 교구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4. 우리는 지난 8월17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아시아주교회의의(FABC) 제8차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메시지에서 강조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의 가치들이 우리 가정 안에 뿌리 내리고 생명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중국과 북한교회의 가톨릭 가정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북한교회와 탈북주민들에 대하여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도우기로 한다.
5. 우리는 각 교구에서 실천하고 있는 가정과 사회사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데 복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긴밀하게 상호 협력한다.
6. 우리는 교회 내적으로 냉담자의 증가, 미사 참례율의 감소, 청소년 세대의 주일학교 참석률의 지속적 저하, 노령신자수의 증가, 청소년 신자비율의 감소, 성소자의 격감 등 교회의 위기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과 교회 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불신, 생명 경시현상, 가치 혼돈, 가정파괴 등 반 그리스도적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을 옥죄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교회의 적절한 사목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7. 우리는 성직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성직자들의 영적지도에 순명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주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즉 교회의 성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평신도 단체로서 가능한 모든 발언과 행동을 하기로 천명한다.

2004년 8월 29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협의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자 일동

◆ 가톨릭대상 시상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4년도(제21회) 가톨릭대상 수상자로 사랑 부문에 정숙희(헬레나, 56, 마산교구 사파동 본당)씨와 광주대교구 운전기사사도회(회장 박종천)를 선정해 지난 12월 28일 시상식을 베풀었다. 또한 송수남(데레사, 81, 서울 혜화동본당)·방수정(데레사, 76, 수원교구 지동본당)씨에게는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날 오후 서울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오늘 상을 받은 분들은 평소에 자신들의 위치에서 사제직과 왕직, 예언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격려하고, “오늘 시상식을 통해 우리도 수상자들과 같은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병두 회장은 인사말에서 “하느님을 위해 일해 온 분들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분들에게서 느낀다”며 가톨릭대상이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봉헌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랑 부문 = 정숙희씨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주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지난 20여 년간 이웃을 위한 지속적 사랑과 관심으로 300여명을 입교시켰다. 또 23년간 레지오 마리아 활동에 개근한 것을 비롯해 연령회·호스피스·빈첸시오회 등 다양한 교회 봉사활동을 통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헌신해왔다. 정씨는 “자격도 없는데 너무 과분한 상을 받게 돼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새해 1월 사제품을 받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랑 부문 = 광주대교구 운전기사사도회

회원 100여명이 10여개 복지시설에 매년 850여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정기방문을 통해 제조작업과 청소, 담장 보수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또 매월 자연보호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노약자 길 안내 도우미와 비신자 홀몸노인 돕기에도 앞장서왔다. 교구 행사에는 영업과 상관없이 전원 참석해 교통정리와 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승차 고객에게 천주교 안내 소책자를 전달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박종천 회장은 “회원 모두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면서 “대상을 받은 만큼 앞으

로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특별상 = 송수남·방수정씨

1996년 가톨릭대상을 받은 양마태(마르타)씨와 함께 군중후원회 '삼총사'로 잘 알려진 두 분은 군 선교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송수남씨는 새벽기도와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독실한 신앙생활로 가족과 친척들을 교회로 이끈 것은 물론 항상 검소하고 솔선하는 모습으로 모범이 됐다. 1982년 육군 을지성당 건축에 성금을 보탠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군성당 건축에 2억8,500여만원을 회사하는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송씨는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는 인생에서 남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픈 마음으로 사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상을 받게 돼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재속회원인 방수정씨는 22년간 6개 군성당 건축에 2억2,000여만원을 기증했다. 또 미래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억5,000만원을 성소장학금으로 봉헌했으며,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에 본원 부지와 유치원 건물을 기증해 수녀회가 한국에서 기반을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방씨는 "수상 소식을 듣고 생전에 벌써 상을 받게 되면 천국 가서 상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농담삼아 얘기하면서 웃었다"고 말하고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되돌려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 평협, 불교 신도회와 교류 모임

손병두(요한보스코)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은 10월 27일 명동 수향 음식점에서 불교 신도회 회장단을 만나 양대 종교 평신도 단체간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앞으로 이런 교류 모임을 자주 갖기로 했다.

이날 평협에서는 손회장 외에 오덕주 부회장, 최홍준 사무총장, 이창훈 서울평협 기획분과위원장, 우재철 사무국장과 종교인평화회의 변진홍 사무총장, 남정를 평화신문 기자가 함께 했으며, 불교측에서는 백창기 회장 외에 손안식 부회장, 최연 사무총장, 이지범 조직팀장과 불교신문 담당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손회장이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 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관에서 불교계 대표 신도단체인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초청으로 만나 가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나눈데 이은 답례 초청으로 이뤄졌다.

각 교구 평협 2004 활동보고

1)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운동

· 가정기도문 배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기도문 제작, 배포.

1차: 15만장, 2차: 5만장, 3차: 5만장 등

총 25만장 제작배포. 꾸준히 요청이 들어온다.

· 엠블렘 제작 홍보

이 캠페인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엠블렘을 제작하여 차량용 스티커 제작 보급, T셔츠를 제작해 각 본당 주임신부, 학교 등에 보급, 각종 팜플렛 등에 홍보

· 스티커 제작

엠블렘을 활용한 차량 부착 또는 다른 용도로 스티커를 제작해 각 본당을 통해 신자들에게 배포하고 교구 운동·운동 단체에도 배포했다.

2) 평화독서 감상문 대회

평화방송·신문과 공동주최 현 추진중에 있음.

초중학생 대상으로 겨울방학 때 독후감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2005년 2월중에 시상식

3) 제1회 아름다운 가정 사진공모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신자는 물론 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진공모전 개최. 11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 공모, 12월10일부터 18일 전시하였다.

장소: 우리은행본점 지하 1층 은행사박물관 앞 전시장

후원: 문화관광부, 우리은행

4) 3대 가족 사랑 캠페인

불교, 천주교 신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르는 3대가 함께 식당에

오면 한사람의 식사대금을 받지 않는 운동을 정부, 사회단체, 불교와 공동으로 전개. 앞으로 고궁, 박물관 음악회 등 입장권에도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5) 생명윤리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및 확산

국회의 민법개정에 대비, 가정·가족보호조항 삽입 노력활동.

6)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12월까지 3차에 걸쳐 매월 1회씩 진행되었고 2005년에는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매번 기도회마다 강사와 체험발표를 듣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7) 아가운동 실천, 가족사랑 등반대회

일 시 : 10월 9일, 오전 10시부터

장 소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

미 사 : 염수정 주교와 지구장신부, 지도신부 등 주례.

참석자 : 지구회장, 본당사목회장, 단체장, 평협임원, 일반신자 등 4백여 명 참석, 성황리에 행사 마침. 2005년부터 매년 가족간의 건강과 화목, 사랑을 염원하는 가족 등반대회 개최예정.

8) 현대인을 향한 영혼의 울림 - 하상신앙대학

일시 : 9월7일부터 11월말까지 매주 화요일(12강좌)

장소 : 명동대성당

· 2004년도 하상신양대학 날짜별 강사와 주제

날짜	주 제	강 사
9/7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정진석 대주교(서울대교구장)
9/14	삶이란 무엇인가?	김수환 추기경(서울대교구)
9/21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최창무 대주교(광주대교구장, 주교회의 의장)
10/5	과연 하느님은 계시는가?	오창선 신부(가톨릭대학교 총장)
10/12	교회와 사회	정하권 몬시뇰(마산교구)
10/19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이창영 신부(주교회의 사무국장)
10/26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유홍식 주교(대전교구)
11/2	신앙선조들의 삶과 신앙	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 연구소장)
11/9	21세기 가톨릭 지성인의 역할과 사명	정의채 신부(서강대 석좌교수)
11/16	문학과 인생	김후란 시인(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
11/23	패러다임의 변화와 종교환경의 다원화	차동엽 신부(인천미래사목연구소장)
11/30	가톨릭과 사회변화	노길명 교수(고려대)

1100명 수강신청. 비신자, 냉담자 다수 참여.

12강좌 강의 테이프 판매 중, 책자 발간 판매하고 있음.

대전평협

◆ 19대 상임위원 첫 회의와 피정



대전교구 평협 제 19대 상임위원으로서의 시작을 피정을 통해 봉사자로서의 마음을 다지기 위해 6월 12일과 13일 배티성지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첫 상임위원 회의에서는 평협이 평신도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평협이 평신도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다.

◆ 가톨릭봉사자 10주 과정 개설



기간 : 2004. 9.7~ 11.30(10주)

대상 : 본당 봉사자 및 앞으로 봉사할 일반신자

시간 : 매주 화요일 낮 1시~ 4시 / 저

녁 7시~9시 (하루 두 차례)

내용 :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 마련.

성서, 기도, 교리상식, 본당사목, 교구재무행정, 사무행정, 봉사자의 리더쉽, 소공동체, 미사전례, 혼인법, 상장례 수강인원 : 약150명.

인천평협

◆ 인천교구 평협, 본당회장·교구 단체 장 전체회의

인천교구 평협은 지난 12월 11일 오후 교구청 대강당에서 본당회장·교구 단체장·평협 임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04년도 사업을 돌아보고 새해 사업계획에 관해서 논의했다.

교구장 최기산 주교 주례 미사에 이어 교구 총대리 이학로 몬시뇰로부터 “현대사회안에서의 교회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듣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2004년도 교구 평협 사업실적 보고와 2005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본당과 교구 단체 분담금 사용 내역도 보고 받았다.

이어 주교좌 답동성당 문화관에서 함께 한 만찬은 송년회를 겸해서 베풀어졌다.

◆ 임원연수

일자: 2004.2.21~22(1박2일)

장소: 예수의 성모 관상수도회

내용: 평협의 기능변화와 새로운 역할
회칙개정

◆ 임원연수

일자: 2004. 4. 24~25(1박2일)

장소: 강화 마니산 성당

내용: 새로 조직된 임원들간의 친교와
만남

◆ 본당회장단회의

일자: 2004. 3. 20

장소: 교구청

내용: 1) 새로운 회칙운영
2) 교구평협 사업계획
3) 본당회장회의 및 지구장 회의
의 설명

◆ 본당회장단 일치를 위한 야외미사

일자: 2004. 5. 23 오전 10시

장소: 인천가톨릭대학교(강화)

내용: 일치를 위한 야외미사와 강의
(성소개발과 가정성화), 친교

◆ 생명과 가정성화의 날 행사

일자: 2004. 6. 27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용: 가정성화와 생명의 중요성에 관
한 제반 행사, 잔치

◆ 순교자연양대회

일자: 2004. 9. 7

장소: 강화 갑곶돈대 성지

내용: 도보순례(강화 용진진-갑곶돈대
성지) 현양미사

*순교자 성월을 맞아 남종삼(요한)
성인의 유해 봉안식과 김성임(마르타)
성녀를 기리는 시간이었다.



◆ 단체장회의

일시: 2004. 4. 24

장소: 가톨릭회관 512호

내용: 평협의 역할 강의와 각 단체의
2004년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평협을 중심으로 평신도
단체들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수원평협

◆ 평협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 3/4분기 평협 상임위원회의
가 수원교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찬중 요셉 지도신부, 안병철 도미
니코 교구평협 회장, 조부연 베네딕토
교구평협 부회장 및 13개 지구 총회장
단이 참석하여

- 2005년도 평협 운영계획
-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운
동”을 소개
- 교구장님의 당부사항인 “대 사회 복

음화" 사례발표
· 도-농 본당간의 인적교류
등에 대한 안전토의를 가졌다.



청주평협

◆ 청주가정대회 '나자렛 성가정' 본받기로
'말씀에 따르는 가정' 등 다짐문
발표.

전국 16개 교구 신자 2,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애덕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정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청주교구는 청주교구 평협과 함께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10월 30~31일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2004 가정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가정대회에 참가한 전국 각 교구 2,000여명의 평신도들은 가정 치유의 밤, 성가정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족들과 함께 하며 무너져 가는 가정운리를 다시 세우고 새 천년기 참된 성가정상을 정립하며, '가정 쇄신'에 온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가정쇄신 다짐문'을 통해, ▲주님

의 날을 성실히 지켜 빠스카 신비와 함께하는 가정 ▲말씀에 따르는 가정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봉사와 나눔이 넘치는 세상 ▲대화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서약했다. 감사미사 중 열린 가정쇄신 다짐문 낭독에서 청주교구 ME 대표 이운영(미카엘)-이형숙(리오마) 부부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은 "가정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자각하고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사랑이 충만한 가정생활을 통해 행복한 가정과 사랑의 문화 건설을 이뤄나가는 선봉장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했다.

낙태아들의 영혼을 위해 '나무십자가 봉헌' 행사로 막이 오른 이번 대회는 '귀한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와 '가정 화목' 등의 지향으로 봉헌된 묵주기도 및 촛불행렬, 한국평신도사도 직협의회 손병두 회장의 성가정 특강, 6남매를 둔 서울대교구 성산본당 김영화-최영희 부부 가족의 '아름다운 성가정 이야기', 청주교구 오송본당 오진순씨의 체험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둘째 날 봉헌된 가정감사미사 강론을 통해 "가정 수호의 근본적인 비결은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후, 성서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며 "모든 가정이 사랑과 웃음, 평화와 희망이 샘솟는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자"고 당부했다.

청주교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셋 이

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은혼·금혼 부부들에게는 축하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 제5회 청주교구 어른신 게이트볼 대회



청주교구 평협(회장 변광수 암브로시오)은 지난 10월 9일 충청북도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제5회 교구장배 어른신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여 모충동 여송학 마리아자 등 총 86명의 어른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과 나눔을 펼치는 한마당 잔치를 베풀었다.

◆ 제18회 찬미예수님의 날

교구내 본당 및 단체 등 총 25팀이 참가하여 각 본당 성가대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청주교구 찬미예수님의 날 행사가 열렸다. 10월 23일(토) 10시부터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올해로 18번째로서 모두 25개 팀 826명이 함께 했다.

시상은 1, 2등을 가리지는 않고, 다만 25년 이상 성가대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임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주교님명의 감사패를 시상식 때 전달했다.

마산평협

◆ 제1회 마산평협 신앙대회, 신자배가운동 다짐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박용기)는 11월 6일 마산공설운동장 올림픽생활관에서 제1회 마산평협 신앙대회를 열고 2006년 마산교구 설정 40주년을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신자배가운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① '성서쓰기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②복음화율을 10%까지 높이기 위한 '새 신자찾기운동'에 먼저 나서며 ③ '쉬는 교우 찾기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산교구 내 전 본당 평협위원과 단체 회장단, 레지오마리에 평의회 단장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박용기 평협 회장과 유영봉 총대리 신부의 강의와 각 지구 대표본당의 기념사업 실천계획 발표, 감사 미사 봉헌과 결의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돼 평신도들의 일치와 화합의 자리가 됐다.

◆ 마산교구 새신 실천운동 전개



앞의 사진에서 마산교구 총대리 유영봉 신부와 사목국장 허철수 신부 등 교구청 사제들과 수녀, 직원들이 홍보용 현수막을 앞에 두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성서 읽고 쓰기·쉬는 교우 찾기·새 교우 찾기
 설립 40주년 앞두고 900일 마라톤 대장정 돌입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기 위해, 성서 읽고 쓰기에 동참하여 내적으로 쇄신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잠시 멀어진 쉬는 교우 찾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수 부활 대축일, 마산교구 63개 전 본당에서는 동시에 내적쇄신과 선교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신자들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마산교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마산교구가 교구설정 40주년을 앞두고 「성서 읽고 쓰기」 「쉬는 교우 찾기」 「새 교우 찾기」 등 세가지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마산교구는 예수 부활 대축일을 기점으로 각 본당에서 이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갖고, 교구의 쇄신과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4월 11일 부활주일부터 교구설정 40

주년 행사가 있을 2006년 10월까지 900일동안 전개될 이 실천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마라톤 대회」를 주제로 침체된 교구를 살리고, 예수의 생명을 사는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은총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운동은 지난 3월 27일 열린 교구 평협 임시총회의 결의와 교구장의 추인에 따라 교구 설정 40주년 기념행사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신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앞장섰다는 점에서 향후 신자들의 동참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마산교구 가톨릭 여성협의회

마산교구 미혼모의 집 '생명터' 축복



마산교구 총대리 유영봉 신부가 생명터 개소미사를 주례하고 있다.

마산교구가 경남지역 최초로 미혼모 보호시설인 「생명터」를 마산시로 부터 수탁 운영한다.

마산교구는 9월 15일 유영봉 총대리 신부와 이청준 사회복지국장 신부, 사회복지시설 관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시 회원1동 322 현지에서 개소미사 및 축복식을 가졌다.

생명터는 대지 60평, 연건평 70평에 양옥 2층 규모로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산후조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25년동안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취지로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온 마산교구 여성협의회(회장=최철순)는 이번 생명터 건립 기금을 전액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생명터는 미혼모들이 자립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 까리따스 봉사대 발족

마산교구 재해, 재난 대비 구조 봉사단 창단

- 목적 : 재해, 재난으로부터 본당 시설물 관리를 위해 봉사단을 조직하여 사고 발생시 초동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외적으로 타 본당 및 지역사회에 구호활동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직

교구 봉사단: 단장, 부단장, 간사, 평협, 기술봉사단, 여성협의회, 레지아, 간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지도신부(사회복지국장신부)

지구 봉사단: 지구단장, 간사, 지도신부(지구장 신부)

지역 봉사단: 지역단장, 간사, 지도신부(지역장 신부)

본당 봉사단: 단장, 핵심봉사조, 비상대기 봉사조, 전문직 봉사조, 지도신부(본당주임신부)

봉사자 기준 : 생업에 종사하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재해, 재난 발생시 복구사업에 참여가능자, 소정의 교육 참가가능자

- 결성 : 본당, 지역, 지구 봉사단은 6월 26일(토)까지 결성완료 후 결성 조직표를 봉사단 회의시 지참 요망

• 교구, 지구, 본당 봉사단장 회의 :

2004. 6. 26(토) 15:00, 마산교구청 4층 회의실

- 발대식 : 일 시 -2004. 7. 11(일). 10:00 15:30

장소-마산 시청 회의실
참석범위 - 교구, 지구, 지역 봉사단, 본당 단장, 본당 핵심 봉사조, 전문직 봉사조

• 자원봉사희망자

문의처 : 교구 사회복지국 (☎ 249-7041 2)

준비위원 : 임춘성 안토니오 (☎ 016-588-4413)



◆ 마산레지아



마산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는 마산 교구 레지오 마리에 탄생 50주년 기념 신앙대회로 “한 마음 대 축제”를 2004년 5월 26일에 거행했다. 교구장님과 70여명의 사제단과 8,000명의 단원들이 참여하여 교구설정 40주년의 완성과 교구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레지오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50주년 레지오 기념비의 건립과 더불어 지난 4월 11일 부활절에 진행 중앙성당에서 성화를 채화하여 교구내 전 본당을 순례하면서 묵상과 쇠신을 위한 기도의 밤을 가졌다. 전야제인 촛불기도회와 공동체 생활체전, 말씀체전, 문화체전, 감사미사, 기념식등으로 거행된 이번 한마음 대 축제를 계기로 레지오 단원들은 교구 평협에서 주관하는 “WJC-32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구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광주평협

1. 교구평협 활동

1) 교구 연령연합회 구성을 위한 연수회 (2004. 7. 3)



'04년 7월 3일 평생교육원에서 엄숙한 상장예식을 실현하고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각 본당 연령회의 임원들에 대한 연수회를 실시했다.

연수회는 “복음화를 위한 연령회”라는 주제로 김형수 비오 신부의 특강이 있었고, 한상귀 로마노 임동성당 연령회 부회장이 본당의 연령회 활동 현황 발표 및 시수, 연습 시범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연령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회장단을 선출하였고, 현재 교구 내 9개 지구 연령회를 구성했다.

특강의 내용은 “위령기도(慰靈祈禱)는 미사와 자선행위(慈善行爲)와 함께 연옥영혼(煉獄靈魂)을 구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하느님은 당신의 구원계획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협조를 외면(外面)하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위령기도와 慈善(자선)은

죽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므로 연령회의 역할과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창 연도대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 제2회 창 연도대회를 11월 13일 개최했다.

2) 순교지의 성지개발을 위한 학술회의 준비(2004. 12. 11)

광주교구의 순교지를 성역화(聖域化)하기 위하여 '03년 "나주 순교지 성지개발(聖址開發)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나주에서 네 분이 순교하였음을 확인하였다.

'04년 12월 11일 순교지의 지적학적 및 건축학적 고찰을 위한 학술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번 학술회의가 끝나면 네 분의 순교자에 대한 시복시성기도운동과 순교자 현양대회 그리고 시복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발제자-김경수 소장, 최상훈 교수
300여명

2. 여성위원회 활동

여성위원회는 2004년 2월 23일 창립 이래 육군 제31사단에 있는 충장성당을 월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간식을 지원하는 등 군인들의 선교에 일익을 담당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교구 내 9분의 은퇴사제를 각 지구별로 가까이 계신 분을 방문하여 영성의 도움을 받고 위로와 희망을 함께하고 있다.

'04년 11월 15-16일에는 광주 명상의 집에서 '여성 리더쉽과 영적 성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자,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영어, 한자, 일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여성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지구평협 활동

지구평협은 9개가 있으며 지구별 체육대회, 연수회, 창 연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순천지구는 5월 22일에 소공동체 활성화 방안, 사례발표 등에 대한 임원연수회를 가졌고 7월10일 제1회 지구장배 족구대회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중부지구는 7월 11일에 사목협의회 연수회 및 합동 친목회를 위한 등산대회를 가졌다.

목포지구는 5월 31일에 목포지역 합동 성모의 밤 행사를 가졌고 11월 중에 창 연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부지구와 동부지구는 6월 6일에, 광산지구는 5월 16일, 북부지구는 5월 23일에 사목협의회 임원 친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광산 지구

사목협의회 한마당 잔치
(2004. 5. 16)

· 동부 지구

춘계연수회(2004. 3. 13)
친선체육대회(2004. 5. 9)

- 지구 창 연도대회(2004. 10. 23)
- 서남부 지구
 - 본당 봉사자 지구 연수회
(2004. 8. 28-29)
- 순천 지구
 - 사목회 임원 연수회(2004. 5. 22)
 - 소공동체-김재기 신부
 - 지구장배 족구대회(2004. 7. 10)
 - 지구 창 연도대회(2004. 10. 24)
- 서부 지구
 - 서부지구 평협 임원 연수회
(2004. 2. 16)
 - 특강-차동엽 신부
 - 친교의 날(2004. 5. 9)
 - 광주시민을 위한 웃음세미나
(9/4- 10/16)
 - 한국웃음연구소-이요셉 소장
- 북부 지구
 - 친교의 날(2004. 5. 23)
- 목포 지구
 - 목포지역 합동 성모의 밤
(2004. 5. 31)
- 여수 지구
 - 단합 체육대회(2004. 9. 5)
- 중부 지구
 - 합동 친목회(2004. 7. 11)
 - 등산회

4. 단체평협 활동

1) 단체평협 활성화를 위한 연수회

- '04년 7월 10일 평생교육원에서 사도직, 신심운동, 직능별단체의 임원이 모인 가운데 각 단체별로 만남의 장을 확대하여 상호 유기적

인 관계를 가지고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자 연수회를 가졌다.

- 연수회는 “교회 안에서의 단체평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희중 허지노 총대리 주교의 특강이 있었고 단체별 분임토의 모임 등으로 진행하여 단체평협의 활동을 다짐했다.
- 이날 15개 단체의 임원 7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도직, 신심운동, 직능별 단체별로 단체평협의 임원진을 구성하여 단체평협이 지구평협과 함께 단위평협으로 활동하게 됐다.
- 특강의 내용은 “평신도의 사도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고 평신도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질서를 복음적 질서로 바꾸어 놓는 것이며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라고 요약했다.

2) 직능 단체평협의 연수회

- '04년 9월 4일에는 별도로 직능 단체평협의 연수회를 개최하여 임원구성을 마쳤다.

전주평협

◆ 교구 제단체장 및 임원 연수회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회장 서동호, 지도 김영수 사목국장 신부)는 9월 4일 오후 2시 전주 가톨릭 센터 3층 강당에서 교구 내 제 단체장 및 임원 연수를 가졌다.

21개 단체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는 교구에 등록되어 있는 제 단체들이 평협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단체이면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평협이 주관하는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교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진 행사이다.

이날 연수는 말씀의 전례와 주교님 말씀, 사목국장 신부의 「평신도 사도직과 제 단체 활동」에 대한 강의, 서동호 평협 회장의 「교구 평협과 제 단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의, 제 단체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그 동안 평협 하면 각 본당 사목회 임원들만의 모임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교구 내 제 단체들도 평협 소속의 평신도로서 본당 사목회 임원들과 일하는 방법만 다를 뿐 예언직, 왕직, 사제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똑같다』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사목교서도 가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그 전에 크고 작은 공동체 모두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에서부터 성서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각 가정에 말씀의 제단을 설치하고 안수기도

를 생활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요한 루갈다회 호남지역 순교자 추모행사



호남의 사도 유향검 가족이 모두 순교한 후 70여 년 동안 신앙의 맥이 끊기다 시피 한 전주, 전북 지역에 박해를 피해 숨어들어 와 신앙의 맥을 다시 살려 놓으신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전주교구 요한 루갈다 회(회장=황의옥, 지도=김영수 사목국장 신부) 회원들과 임실본당(주임=이수현 신부) 및 신대인 본당(주임=김병환 신부) 신자들은 추석연휴 기간인 9월 26일 오후 2시 김대건 신부 동생 김난식(프란치스코)과 김현채(토마스)의 묘가 있는 전북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회문산

자락(옛 지명=떡구니)을 찾아 박해를 피해 갖은 고생을 다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미사를 봉헌했다.

요한 루갈다 회원 30여명과 임실, 신태인 본당 신자, 김대건 신부 후손 등 1백여 명이 함께 한 이날 추모미사는 박해를 피해 전북 고산, 회문산, 쌍치 지역으로 숨어들어 와 새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정읍과 임실, 수류, 부안 등 지역에 다시 신앙의 불길을 지피게 한 충청도에서 피난 왔던 신앙선조들을 기억하고, 이 지역이 전주교구사의 맥을 잇는 중요한 자리임을 재인식하자는 차원에서 갖게 되었다.

신태인 본당 주임 김병환 신부는 “이곳에 김대건 신부님의 동생 묘가 있다는 것은 신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신태인, 임실 본당 등 지역 교회의 뿌리이며, 전주교구사의 맥을 잇는 자리라는 것은 이번 신태인 본당 75년사를 정리하면서 처음 알았다”며 “교회의 역사는 하느님 섭리의 역사인데 전주교구에는 성지가 많다보니 이런 곳까지 관심 가질 여유가 많지 않지만 피의 순교보다도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 삶으로 증거하신 분들을 생각할 때 그냥 묻어 두기엔 많은 아쉬움이 있는 곳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교구차원에서 개발해야 할 곳”이라고 강론을 통해 말했다.

- ◆ 제4회 요한루갈다제 및 전주교구 새 가톨릭센터 신축선포식 교구청사를 비롯해 교구 신자들의

신앙교육과 교회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전주가톨릭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교구는 10월 2일 치명자산 성지광장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를 비롯해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평신도 등 5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센터 신축추진 선포식을 가졌다.

제4회 요한루갈다제를 겸해 열린 이날 선포식은 순교자 요한(유중철)과 루갈다(이순이) 동정부부의 숭고한 사랑을 되새기는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센터추진 선포식, 축하공연, 터밋기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터밋기 행사에서는 저녁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전신자들이 치명자산 성지광장에서 새 가톨릭센터 부지까지 촛불행렬과 묵주기도를 봉헌하며 성공적인 센터의 신축을 기원했다.

교구청이 들어서 있는 기존의 가톨릭센터는 1970년에 세워져 낡고 노후한데다 당시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사제 신자수로 인해 새 가톨릭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교구는 2003년 7월 센터 건립을 위해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가톨릭센터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조정오 신부)를 구성하고,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옛 전주공전 터 1만6,000여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교구는 이곳에 180억원을 투입, 교구청사를 비롯해 신자들의 영적 쇄신

과 신앙교육을 돕는 도서관 및 박물관, 전시실, 방송국 등 총체적인 교육, 문화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교구설립 70주년이 되는 2007년까지 1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 신축 부지는 교구의 대표적 순교성지인 치명자산 성지와 인접해 있고 전주 문화관광권과도 연계되는 거점으로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가톨릭 문화를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선교 공간으로도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병호 주교는 “순교자들의 숨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땅에 교구민의 숙원인 새 가톨릭센터가 하느님의 뜻대로 잘 건립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 서동호(바오로)전주평협 회장은 2004년 9월 4일(토) 가톨릭센터회의실에서 교구내 제단체장(임원)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단체장 연수회를 개최하고 「교구 평협과 제단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의했으며 평협의 중점과제의 하나인 지구평협 결성을 위한 예비단계로 9개 지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6일 남전주지구 사목회장협의회를 가짐으로 해서 5월 5일에는 김정고부지구협의회 6월 10일에는 북전주지구 사목회장 협의회 7월 12일에는 서전주지구 사목회장 협의회 8월 16일에는 임순남,무진장지구사목회장협의회 9월 3일에는 2차 김정고부지구 사목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평협의 정체성확립방안과 지구평협

결성의 타당성 및 각종현안을 토의하고 교구에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 평협임원 부부동반 친교행사

6월 12일(토) 전주평협은 치명자산 몽마르뜨광장에서 주교님을 모시고 (지도신부 김영수, 조정오 총대리신부, 김봉희 신부님)60여명의 평협임원 부부들이 함께하여 평협의 하는일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내조자 상호간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평협발전에 기여하자며 흥겨운 애호 시간을 가졌다.

제주평협

◆ 제주교구 2차 소공동체 대회

2004년 9월5일(주일) 제주교구 제2차 소공동체대회가 신자 6,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라체육관에서 개최 되었다. 개회식에는 제주교구 24개 본당이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입장식을 펼두로, 허승조(바오로) 총대리 신부의 개회선언, 강우일(베드로)교구장 주교의 개회사, 김항원(아타나시오) 평협회장 인사, 교황님 축하 편지, 김수환 추기경 영상 축하 인사, 이해인 수녀 영상 축하,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제주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초청강연이 있었으며, 제주교구 성령봉사회의 찬양, 소공동체 사례 발표, 전레댄스와 함께 어우러진 소공동체 미사가 봉헌되었다.



◆ 제주교구 신양학교

제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레지아와 공동으로 평신도 봉사자 교육인 신양학교를 1,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해 오고 있다.

1단계 교육은 1998년부터 매년 3월 초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에 2시간씩 15주간을 해왔다.

교구 내 12명의 사제와 수도자 및 평신도가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예비자에게 기초적인 교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신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수료자는 946명이다. 금년부터는 9월 초부터 2단계 평신도 봉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저녁에 2시간씩 10주간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서 제시

현장과 교회에 관한 교회현장을 공부하고 있다.

주교님과 5명의 신부님이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교육 방법은 공의회 문헌을 갖자가 읽고 2~3명의 말씀을 나누고 발표하며 나중에 담당 신부님이 보충을 하는 방식이다. 현재 수강자는 140명이다.



‡ 평신도 봉사자 교육



‡ 신양학교 수료식

마리아사업회
(포콜라레운동)

◆ 포콜라레 한국진출 35주년 기념행사

포콜라레운동(마리아사업회)은 12월 12일 서울 방배3동 서울시 교육연수원 강당에서 한국 진출 35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지난 35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일치'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회원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1943년 12월 포콜라레운동 탄생과 한국에 첫 포콜라레가 열린 1969년 10월 이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영상물 시청과 함께 젠(Gen)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 함창단의 노래와 춤, 시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대전교구 부교구장 유홍식 주교, 대구대교구 총대리 최영수 주교, 교황청평신도평의회 위원인 한홍순 한국평협 부회장, 개신교의 강원룡 목사(평화포럼 이사장)·원불교 조정근 효산법사(원광학원 이사장)와 김성곤·원희룡·정두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1000여명의 포콜라레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원룡 목사는 축사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아씨의 성자 프란치스코와 포콜라레를 창시한 끼아라 루빅 여사"라고 말하고, 한국 포콜라레가 북녘동포들의 마음을 녹이고 지구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와 사랑의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비복음적 문화가 판치는 현대사회에서 포콜라레의 '일치'의 영성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등 세상 구석 구석으로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불교 조정근 효산법사는 1980년대 이래 포콜라레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이웃종교간의 구체적인 대화의 장이 소중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말했으며, 강우일 주교는 1970년대 초 로마유학 중에 만난 포콜라레운동의 체험담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는 사례를 보게 되어 "로마도 괜찮은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현대의 크리스천 생활에 복음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면서 "한국 진출 35주년을 맞는 포콜라레가 하느님 사랑을 본받아 험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참된 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세나투스

◆ 서울대교구 레지오마리에 도입 50돌

서울 무염시대 세나투스(단장 팽종섭, 지도 윤병길 신부)는 2005년 서울대교구 레지오마리에 도입 50돌을 맞아 8월 19일 대규모의 신앙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1월1일부터 레지오마리에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도운동에 들어갔다. 서울 세나투스는 △세계평화와 남북화해 △가정성화 △레지오마리에 정신 실천을 지향으로 12월 31일까지 묵주기도 3억5,000만단을 바치기로 하고, 서울대교구 소속 단원들에게 매일 10단 이상 묵주기도를 바친 다음 브레시디움 회합 때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세나투스는 또 성모신심 세미나를 7월4일부터 8월1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명동성당 문화관 게스트홀에서 열고, 레지오마리아가 서울대교구에 처음 도입된 날인 8월19일 잠실종합운동장이나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대교구 레지오 단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신앙대회를 개최하기로 할 계획이다.

서울대교구 레지오마리아는 1955년 8월19일 서울 흑석동본당에서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이 창단됨으로써 출발했다. 2004년말 현재 서울대교구에는 31개 꼬미시움, 459개 꾸리아, 7113개 브레시디움, 행동단원 6만7,711명, 협조단원 9만4,353명이 있다.



한국평협, 개신교 평신도 단체와 함께 반대 기자회견

한국천주교 평신도시도직협의회 손병두 회장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 신기자클럽에서 개신교 측 한국 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 김봉갑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회장은 외국 출장중인 김봉갑 회장을 대리해서 나온 심영식 개신교측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 사무총장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첫째,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철회할 것,

둘째 사학 재단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철회할 것,

셋째, 학교 예산 심의를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철회할 것,

넷째 각 사학의 고유한 교육 이념과 방침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할 것,

다섯째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학의 고유한 교육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열린 우리당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하여 2004년 10월 14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한국의 교육 실정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무책임한 법률 개정안으로 우리는 이에 결사 반대하는 바이다.

유치원생의 78%, 중등학생의 20%, 고등학생의 54%, 4년제 대학생의 78%가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막중하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에 걸맞은 대접은 고사하고, 사학의 특성을 무시하며 권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한국 교육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각 사립학교 고유의 교육 이념과 교육 특성을 살려 교육을 할 때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사학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평준화를 명분으로 획일화된 교육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이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한국 기독교 및 권위 있는 종교, 사회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도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여당과 정부 당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요구 사항 □□□

첫째,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철회하라.

둘째, 사학 재단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철회하라.

셋째, 학교 예산 심의를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철회하라.

넷째, 각 사학의 고유한 교육 이념과 방침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라.

다섯째,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학의 고유한 교육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을 보장하라.

2004년 10월 29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손병두

한국 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 회장 김봉갑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이용훈 주교도 기자회견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회장 이용훈 주교(수원교구 총대리)는 11월 24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회장 서경윤 신부와 사무국장 안병초 수사가 배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한국의 사립학교는 건국 초기 정부 당국이 교육을 전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2004년 현재에도 사립학교 재학생 수는 유치원의 78%,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54%, 특수학교의 57%, 전문대학교의 95%, 대학교의 78%를 차지하여 여전히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과는 전혀 논의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하여 2004년 10월 14일 이른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재 절실한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사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 강구일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적법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 제도 자체와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고유한 이사회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학교장의 책임과 지도

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들의 일치를 위협하여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줄이고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통제 하의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창의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충실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이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2004년 10월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헌법소원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4년 11월 일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회장 이용훈 주 교
부회장 서경윤 신 부
사무국장 안병초 수 사

주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성명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는 가을 주교회의기간 중이던 지난 10월 14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국가가 못 다한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제하고, 이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진의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주요 사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어, 이는 사립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이 약화되고 구성원들의 일치가 위협받게 되어 교육 현장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은 또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법을 따르며 가톨릭적 인성관과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신자와 국민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사학의 발전을 주장하고 그에 장애를 일으킬 법 개정을 반대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사학법 개정을 매우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국가가 못 다한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2004년 현재, 사립학교 재학생 수는 유치원 78%, 중등학교 20%, 고등학교 54%, 특수학교 57%, 전문대학 95%, 대학 78%로 이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인가받은 설립자가 세운 학교의 학생입니다.

현재 집권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관계자 대부분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진의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주요 사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이 약화되고 구성원들의 일치가 위협받게 되어 교육 현장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사학의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나 사실 필요한 것은 더욱 건전한 사학 발전을 위한 지원책인 것입니다. 사학의 비리는 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3000년기를 시작하며 교육이 앞선 세계 여러 나라(일본, 미국, 유럽)가 질적인 개혁을 하였고, 2000년대의 세상에서 살게 될 인재 양성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요약하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 인간성이 풍부한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며 사립학교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통제 하에 획일적인 교육만으로 세계화 시대의 창의력 있는 일꾼을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충실하도록 훨씬 더 자율화되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법을 따르며 가톨릭적 인생관과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각 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또는 교육 사업을 시작한 학교법인들도 그들의 건학 이념에 따라 국가가 못다한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들을 사립학교에서 육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학 발전을 저해하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자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학교 교육의 중요함을 아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이 민주화된 세상에서, 사학의 발전을 주장하고 그에 장애를 일으킬 법 개정을 반대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를 청합니다. 교육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인간답게 살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모두 함께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릇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똑똑히 밝힙시다.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이 날로 발전하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주 교

위 원 이문희 대주교

김지석 주 교

장봉훈 주 교

최영수 주 교

이한택 주 교

이용훈 주 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정부와 여당은 사학비리 근절을 명분으로 사학법인의 학교운영권을 평교원들에게 넘겨주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립학교는 사인이 자기 주도에 의해 사유재산으로 학교를 세우고 각자의 신념과 교육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설립자의 자율운영권 보장이 목표달성의 필수요건이다. 이는 민주적 교육이념의 당연한 발로로써 우리 헌법이 밝히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기둥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일부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사학제도의 근본을 뒤흔들 법개정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종교계는 여명기로부터 일제식민지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많은 사립학교를 세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민족사의 발전을 선도해 왔음을 자부한다. 국가의 주권을 잃고 혹독한 시련을 겪던 시대에도 우리 사립학교는 건디기 힘든 고통의 가시밭길을 헤치며 건학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왔다.

작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은 곧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학을 이끌어온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길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학을 위하여 사재를 희사하는 사람이 어디있으며 사학운영을 위하여 희생을 감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결말은 사학쇠퇴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국가백년대계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하는 우리 7개 종단 대표들은 사립학교법 개악 추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종교계의 입

장과 요구를 천명한다.

첫째, 일부 사학비리를 이유로 사학재단의 학교 운영권을 빼앗는 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둘째, 사립학교들이 자유롭게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교육법에 따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사학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벌하라.

넷째, 만약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우리 종단들은 총단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4년 8월 일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법 장(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동대표	길자연(한국기독교종연합회 대표회장)
공동대표	최근덕(성균관장)
공동대표	이혜정(원불교 교정원장)
공동대표	최기산(천주교 주교)
공동대표	이철기(천도교 교령)
공동대표	한양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 2004 도농한마당 잔치

추수 감사를 위한 「2004 도농 한마당 잔치」가 11월 7일 대전 갑천 둔치에서 열렸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10주년 기념을 겸해서 마련한 이날 행사는 대전교구 한상열 회원의 풍물패가 길놀이를 펼치고 문굿, 지신밟기, 제지내기 등을 시작으로 펼쳐졌다.

우리농 상임본부장 유영일 신부와 각 교구 우리농 담당 신부가 공동 집전한 추수감사미사에서 농민들은 오리쌀을 비롯한 잡곡, 과일, 채소 등 생명농법으로 농사지은 수확물과 가공식품들을 봉헌, 올 한해 추수에 감사하며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기도했다.

기념식에서 가톨릭농민회 정재돈 회장은 “농산물 개방과 식량자급률 위기에 대비해 우리 교회가 10년전 우리농운동을 시작했으며, 개신교와 불교에서도 현재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농촌 살리기운동은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2단계 ‘사람농사’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손병두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도농 한마당잔치가 우리 농촌을

살리고 도시 신자들에게는 나눔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강기갑 민노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생명 줄인 쌀을 지키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운동에 참여해온 전국 각 교구 생산자와 소비자가족들은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위해 굳게 손잡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 반포 150돌 기념

동정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 선포 150돌을 기리는 성찬례가 로마와 서울에서 거의 동시에 거행됐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2월 8일 베드로 대성전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교리 선포 150주년 기념미사를 집전하고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거룩하고 원죄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로마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미사에서 교황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교리의 의미를 설명하고, 특히 '성체성사의 해'를 지내는 동안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가 신앙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회는 5세기 말부터 '성모 마리아 무염시태 대축일'을 경축해왔으며, 교황 비오 9세가 1854년 12월8일 베드로 대성전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심을 교회 교리로 선포하자, 3년 2개월 후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루르드에 발현하신 동정 성모

께서 이를 뒷받침해주셨다.

한편 로마보다 1시간 늦은 이날 오후 6시 30분(로마 시각 오전 10시 30분) 서울대교구는 명동성당에서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주례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교리 선포 1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성모 마리아께 한국교회 발전을 도와주실 것을 기원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 염수정 주교와 김윤희 주교를 비롯해 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된 이날 미사에 앞서 6시에는 손병두 회장을 비롯한 한국평협 회장단, 임원들과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 산하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들, 명동본당 신자들을 비롯한 2천여 명이 대성당과 문화관 소성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환희의 신비 묵주기도를 바쳤으며, 이어서 장엄하게 미사를 봉헌했다.

정진석 대주교는 강론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정한 성체성사의 해에 1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며 "성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성체성사의 의미를 적극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황,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발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체성사의 해를 맞이해서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발표한 교황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를 통해 “성체성사의 해는 그리스도와 그분 얼굴에 대한 관상이라는 주제에 변함없이 충실하면서도,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풍요로워진 배경 위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하고, 각 본당 공동체와 목자들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교육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며, 신자들이 그들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 신비안으로 들어가는 데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교서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낼 것을 당부하면서 “이 은총의 해에, 사제들은 사목직무를 통해 다양한 집단과 운동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 본당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주일 미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3항)고 당부하고, 성체조배의 중요성과 성체성사의 해에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을 그날의 전통적인 성체행렬과 더불어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거행할 것(18항)을 요청하고 있다.

성체성사의 해는 2005년 로마에서

'성체성사'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제11차 총회 때까지 이어진다.

한편 교황청 경신성사성 장관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은 10월 8일 교황청 공보실에서, 2004년 10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성체성사의 해를 맞아 교회의 모든 주교와 사제, 신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viscum Domine)를 발표했다.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10월 7일자로 이탈리아어로 발표된 이 교서는 서론과 네 개의 장,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6월 10일 로마시내 성 요한 라테라노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된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에서 전 세계 교회에 성체성사의 해를 거행하도록 선포한 바 있으며, 아린제 추기경은 30쪽 분량의 이 교황 교서는 “교회가 성체성사의 해라는 특별한 시기를 보내면서 최대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때인 2002년 8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아린제 추기경은 “이 교황교서의 근본 주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 교황 교서는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 십시오.”(루가 24,29)라는 성서 구절로 시작된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나그네에게 진심으로 건넨 권유였다. 슬픈 생각에 잠겨 그들은 그 나그네가 바로 방금 부활하신 그들의 스승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아린제 추기경은 “성체성사의 해에 교회는 거룩한 성체성사의 생생한 신비에 특별히 투신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하느님의 신비를 알려 주시고, 성서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신다. 이러한 만남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빵’을 쪼개신다.”고 말했다.

아린제 추기경은 또, “교황 성하께서는 재임기간 중 여러 번에 걸쳐, 특히 지난해에는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를 통해, 성체성사에 관해 성찰하도록 교회에 권고하셨다. 교황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성체성사의 해의 시작과 끝을 조명하고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곧 2004년 10월 10일에서 17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

릴 제48차 세계성체대회와 2005년 10월 2일에서 29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릴 제11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총회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 교황, 멕시코 세계성체대회에 화상 메시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0월 17일 멕시코 세계성체대회에 화상 메시지를 전하며 두려움과 테러, 전쟁으로 갈라진 세계에서 인류는 평화와 계몽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날 멕시코 중서부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가톨릭 세계성체대회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화상 메시지를 전했으며 행사장에 모인 가톨릭 신자들은 “전 세계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일제히 외쳤다.

교황 메시지는 “인간의 마음은 죄에 의해 압력을 받고, 피로에 의해 갈피를 못 잡으며, 온갖 종류의 고통으로 도전받을 때 빛을 필요로 한다”면서 “또한 세계는 폭력과 테러, 전쟁으로 가득 찬 새 밀레니엄 초기에 저 멀리 있는 평화를 어렵게 찾아 나서면서 빛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 주교회의, 2005년도 공동사목교서 발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1월 28일 대림 제1주일을 기해 「가정에 관한 공동사목교서=가정: 사랑과 생명의 터전」을 발표했다. 공동 사목교서는 “이제 우리 주교들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그리스도인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가정을 초대한다”는 주교회의 의장 최창무 대주교의 인사말에 이어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창조질서, 생명 존중, 가정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가정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 다음, 한국 사회의 세속화와 가정해체현상을 짚어 보고 교회의 사목적 대안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교육하고 실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이 교서를 소책자로 만들어 전국의 신자들에게 배포한다.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을 총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능동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2004년도 추계 정기총회를 열고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를 비롯해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총망라한 「한국 지역교회법전」을 출판하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또 2005년 「새 번역 성서」 합본을 발행하기 전까지, 전례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식서의 시안들(「어른 입교 예식」, 「건진 성사 예식」, 「수도 서원 예식」, 「병자의 도유 예식」, 「장례 예식」)을 각 교구에서 교구 상황에 따라 제작해서 사용하기로 했으며,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의 회칙을 승인하고, 교황 성하의 뜻을 받들어 성체성사의 해를 교구별로 지내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특히 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2004년 대림시기를 기해서 한국 주교회의는 ‘가정을 위한 교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 주교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위원장 확정

지난 10월 11일-14일 서울 능동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2004년도 가을 주교회의는 주교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하고, 이주사목위원회를 사회주교위원회로, 문화위원회를 선교사목주교위원회로 그 소속을 각각 변경했다.

1) 주교위원회 위원장

- 성직주교위원회: 정명조 주교
- 교리주교위원회: 최창무 대주교
(유임)
- 선교사목주교위원회: 김지석 주교
- 사회주교위원회: 강우일 주교
-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이문희 대주교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박정일 주교(유임)

2) 전국위원회 위원장

- 가정사목위원회: 이기현 주교(유임)
- 교리교육위원회: 장봉훈 주교
- 교육위원회: 이용훈 주교
- 교회법위원회: 정진석 대주교(유임)
-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김희중 주교
- 매스컴위원회: 최덕기 주교
- 문화위원회: 김지석 주교(유임)
- 민족화해위원회: 김운희 주교(유임)
- 복음화위원회: 최영수 주교
- 사회복지위원회: 유홍식 주교
- 성서위원회: 권혁주 주교(유임)
- 신앙교리위원회: 안명옥 주교(유임)
- 이주사목위원회: 강우일 주교(유임)
- 전례위원회: 이병호 주교(유임)
- 정의평화위원회: 최기산 주교
- 천주교용어위원회: 장익 주교(유임)

·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염수정 주교(유임)

3) 특수 분야 책임 주교

- 수도자 담당: 이한택 주교(유임)
- 한국외방선교회 총재: 정진석 대주교
- 한국가톨릭교리신학원 총재: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유임, 당연직)
- 로마 한인신학원 총재:
정진석 대주교(유임)

♥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평협 관련 세미나 개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총무 정월기 신부)는 2004년 11월 5일(금)과 6일(토) 이틀 동안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회 구조에서 본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각 교구 총대리와 사목국장, 손병두 전국평협 및 서울평협 회장 등 각 교구 평협 대표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준비위원 등 모두 40명(주교 3, 사제 16, 수도자 1, 평신도 20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는 염수정 위원장 주교의 개회인사에 이어 정월기 총무 신부의 오리엔테이션과 전주교구 사목

국장 김영수 신부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구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의 “평신도사도직의 현재와 전망”, 전주교구 사목국장 김영수 신부의 “평신도사도직과 교회 안의 제단체 활동과 평협 연구”, 인천교구 사목국장 현명수 신부의 “평협의 기능 변화와 새로운 역할-인천교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최홍준 사무총장의 “각 교구 평협의 구조 비교”, 한국평협 김득수 연구위원의 “평협의 발전방향 모색”, 그리고 서울대교구 복음화사무국 연구실장 전원 신부의 “교구 사목구조와 평협” 등 6개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세미나는 주교회의의 2004년도 춘계 총회가 요청한 사항을 토대로 각 교구 고위 성직자와 평협 관련 사제,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다. 주교회의의 2004년 춘계 정기총회는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의의 본질과 기능 등을 분명히 하고, 성서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회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하여 평신도의 고유한 은사와 교회 내 역할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 연구결과를 제출”(중협주: 제2004-247호)하도록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

라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는 당면과제로 평협 관련 각 교구 책임자와 평신도 대표자들이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을 한층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비공개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평협의 정체성은 교회론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회를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교회헌장에 대한 공부).
2. 교회는 하나다. 교회 대표는 교구장 주교이다.
3. 모든 단체나 사도직 단체는 주교의 협력자이다.
4. 평협은 '사도직단체협의회'라야 한다. 단체들이 회원이다.
5. 현실적으로 본당 차원의 구성원을 누구로 할지는 풀어야 할 과제이다(본당 총회장이나? 본당 평협 회장이나? 하는 문제).

♥ 레지오 마리에 새신 위한 전문위원회 발족

공인 교본에 드러난 조직과 규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교회법과 교회의

가르침에서 제시한 교회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한국 레지오 마리아의 쇄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레지오마리아 쇄신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8월 26일과 27일 서울 장충동 분도 피정의 집에서 개최하고 "개별 지역교회의 사도직 활동은 해당 교구장의 통솔 아래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교회법 제 394조 참조)는 교회법 정신에 근거해서 레지오 마리아 쇄신방향과 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문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레지오 단원들의 지나친 교본 위주의 사고 경향 ◇선출직 임원제의 문제점 ◇교구 중심의 교계 조직을 떠난 레지오 조직 ◇레지오 상급기관의 문제점 등을 다루고 ◇레지오 마리아의 교구 단위 단체화 ◇전국 협의회의 구성 ◇원문에 충실한 교본 번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국평협 2005년도 사업계획안

〈활동지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구현을 위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강화
가정성화를 통한 사회복음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교회와 사회 안
에서 평신도사도직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새해 활동 지표로 삼고자 함.

· 중점 사업

1. 가정성화와 생명문화를 통한 사회 복음화
주교회의 「가정에 관한 공동사목교서」내용 실천
2. 평협의 정체성 확립과 단체 사도직 강화
3. 성체성사의 해
4. 탈북자 돕기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 운동

· 세부 사업계획

1. 가정성화와 생명존중
 - *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운동의 지속적 전개
 - * 모범가정 사례 수집과 발표
 - * 평신도 부모에 의한 성·생명교육 확대
 - * 평신도 부모에 의한 혼인교육 강화
 - * ‘죄의 구조’ 극복을 위한 대 사회활동 강화
2. 평협의 정체성 확립과 단체 사도직 강화
 - * 평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활동
 - * 교구평협간의 유대 강화방안 모색
 - * 회원 단체간의 연대
3. 성체성사의 해
 - * 교구별 행사(주교회의의 결정 사항)
 - * 성체성사의 생활화 방안 강구
4. 탈북자 돕기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노력 확산
 - * 탈북 동포돕기 활성화
 - *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2005년도 분과별 활동계획

- ◎ 기획분과위원회
- ◎ 복음화분과위원회
- ◎ 가정사목분과위원회
- ◎ 여성분과위원회
- ◎ 사회사목분과위원회

<2005년 사업계획안>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 중 각 분과별 업무분장 제1항 : 기획분과 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기획과 각종 회의 및 행사 준비,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 이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기획

가. 책자 발간(회칙 제4조 1;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유대의 강화)

- (1) 각 분과위원장은 2005년도 각 분과별 사업계획을 정리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수합된 계획은 기획 분과에서 편집하여 사무국에서 출판, 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등에게 배포한다.
- (2) 2004-3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 2005년 각 교구 평협 및 단체별 사업계획을 정리하여 편집하고, 그 출판 문제는 추후 사무국과 협의한다.

나. 인재 풀과 네트워크 구성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회칙 제4조 1)

※ 기획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후, 시작한다.

다. 전국 평협 연구팀의 연구내용에 대한 후속 연구를 추진한다(별첨 자료 참조).

※ 후속 연구는 중·장기(1-2년) 과제로 하여 기획 분과 주관으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추진할 수도 있고, 전문 연구 기관(가톨릭교리연구소 등), 또는 언론기관(평화신문 등)에 용역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회칙 제4조 2: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 연구 내용은 “전국 평협 연구팀의 연구내용에 대한 후속 연구 제안” 참조

2. 각종 회의 및 행사 준비 : 이 회의 실무를 집행하는 사무국에 협조한다.

가. 분과위원장단 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나. 각 분과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사무국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3.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가. 분과위원회의 구성 문제

- (1) 각 분과는 5명의 위원과 필요한 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각 교구 평협의 해당 분야 위원장은 전국 평협의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

나. 각 분과위원회는 관련이 깊은 각 교구의 분과위원장들과의 회합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전국 평협 연구팀의 연구내용에 대한 후속 연구 제안

연구팀의 '평협의 정체성과 역할' 연구에 대한 심화 및 후속 연구로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제안 이유: 평신도 활동에 관한 주교회의의 2004년 춘계총회 결정 내용 중 “한국 교회의 자랑인 평신도들의 창의성과 헌신적 자세, 교회에 대한 아낌 없는 협조 정신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서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평신도의 고유한 은사와 교회 내 역할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과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 제4조 2항(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연구)에 따른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중·장기 과제로서 1년 또는 2년 정도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연구 내용

1. 서언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평신도 사도직의 개념

- 가. 평신도 사도직의 특성 나. 평신도 사도직의 위상
- 다. 평신도 사도직의 개념 정의를 위한 근거
- 라. 평신도 사도직의 개념

3. 평신도 사도직의 직무 분석

가. 현행 평신도 사도직의 직무분석

나. 선행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평신도 사도직의 역할 기대(선행 설문조사가 없을 시는 이 항목은 뺐)

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역할 기대 분석

- (1) 설문조사 대상(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및 회수율
- (2) 설문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특징
- (3) 평신도 사도직의 위상에 대한 반응
- (4) 평신도 사도직의 직무수행에 대한 개인적 반응
- (5) 평신도 사도직의 직무수행에 대한 응답 집단별 반응
- (6) 평신도 사도직의 영역별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응
- (7) 평신도 사도직의 발전적 역할 수행에 대한 반응
- (8) 평신도 사도직의 자격, 임용, 연수에 대한 반응

4. 주요 선진국(이태리, 프랑스, 미국 등)의 평신도 사도직 및 사도직 제도

가. 평신도 사도직의 의미

나. 평신도 사도직 기구

다. 평신도 사도직의 업무

5. 평신도 사도직의 발전적 역할

가. 평신도 사도직의 기본자세

나. 평신도 사도직의 발전적 역할

6. 요약 및 제언

가. 요약

나. 제언

<2004년 업무 보고>

1. 조직 결성 : 한국 평협 복음화 분과 위원회 위원 위촉

가. 자문위원 : 박석돈 박사(전 경북대 교수), 배상희 신부(대구대교구 청소년사목 담당), 이무하 교수(서울대 교수)

나. 분과위원 : 류진춘 교수(경북대 가톨릭학생회 지도교수) 이원희(대구교육대학 교수), 이옥분 교수(경북대 가톨릭교수회 회장) 최청(가톨릭학술원 회장), 총무 : 차상은(알폰소)

2. 복음화 분과위원회 업무 보고

가. 전국평협 상임위원회 회의(2004. 8. 28-29): 복음화 분과 위원회 업무 및 계획 보고

나. 전국평협 분과 위원장 회의(2004. 2004,10.7) : 복음화 분과 위원회 2005년 중점 과제 선정<한국 대학생 복음화>

3. 분과 위원회 업무 협의

1) 분과위 목적 설정

-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평신도의 생활 영역별 하느님의 말씀인 복음의 생활화
- 2004 제2차 한국 평협 상임위원회 결의 사항 - 2항 -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기 위함

2) 한국 교회의 복음화의 위기 현황

가. 가톨릭 신영세자의 격감<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연령별 신자 집계>
· 50-59세 신자의 증가 추세 97년 전년대비 4.5%, 98년 6.7%, 99년 7.0%, 2000년 2.3% 2001년 4.1%증가 5년 평균 5.06%증가

나. 청소년 세대의 신자 증가율 감소 : 가톨릭의 청소년층의 이탈 현상이 타 종교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들이 교회의 주체라는 의식 부족
· 13-19세 신자 97년 전년 대비 2.5%, 98년 1.4%, 99년 -0.3%, 2000년 5.5%, 2001년 1.1%증가, 2002년 -6.1% 대폭 감소

다. 청소년 신자 분포의 급감- 청년 신자 비율의 감소

〈한국 꺽립의 종교내의 청년인구 (18-30세) 분포〉

개신교 46%, 불교 33%, 천주교 19%(늙은 종교, 교회 전반의 활력 저하, 성소자 감소로 연결되어 서구 교회의 전철 답습 가능성)

라. 냉담자(쉬는 교우)의 증가:

- 천주교 신자의 뉴 에이지 사상, 신과학 운동, 단학, 참선 등 타 종교 수행 방법에 암암리에 경도 접목하는 현상(냉담자 증가의 원인)

3) 활동 영역과 범주: 전 생활 분야의 복음화 계획(중장기적 과제)

가. 개인의 복음화 - 평신도의 개인성화, 각종 영성교육에의 참여 유도, 신심단체에의 참여와 활동 유도(교육 분과 위원회의 협조)

나. 가정 복음화 - 짝교우 해소, 가정기도, 가족 공동행사 참여, 전국평협의 '아가 운동' 과 연계(가정 사목 분과 위원회 협조)

다. 직장 복음화 - 직장별 직능별 평신도 조직의 활성화, 현황 파악. 청소년 복음화 필요성 증가(사회 사목 분과 위원회)

라. 지역 복음화 - 가두선교, 시장사목, 이동교회, 유원지 휴양지 사목 중요성 증대(문화 분과 위원회)

마. 민족 복음화 - 북한 선교, 북한교회 돕기, 민족화해 공동미사, 탈북자 돕기와 선교(민족 화해 분과 위원회)

<2005년 사업계획안>

〈중점 과제〉 한국 대학생 복음화 계획

1. 목표: 전국 각 대학 가톨릭 학생 조직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 대학생 선교 사업(대학생 신영세자 교회 인도) 강화
- 대학 가톨릭 학생회, 신심 단체 조직 및 활동의 활성화
- 대학 가톨릭 교수회 조직과 학생 조직의 연계를 통한 캠퍼스의 유기적인 복음화

2. 교회의 청년사목 지침

가.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선교 열은 언제나 교회 활력의 표지였으며, 반대로 선교열의 감퇴는 신앙악화의 표지이다'

나. 200주년 사목회의(17항) 결정 - 교회의 청소년 사목의 적실성 강조

가톨릭교회가 젊은 대학생의 의지와 이상을 수용하지 못하면 많은 대학생들을 포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리스도의 품에서 쫓아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이들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교회 밖의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까지도 사목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식 전환의 필요하다.

라. 주교회의 선교사목 주교위원회(김지석 주교)와 산하 복음화위원회(최영수 주교) 사목지침과 각 교구 청소년 사목방침에 적극 협력

3. 대학 복음화 현황 (문제점)

가. 청년 학생 신자는 급감하고 교회는 노령화 되고 있으나 교구 차원의 청년 사목이나 대학 사목은 일부 교구를 제외하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전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20-30대의 선교 전략의 부재

나. 청소년 사목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사목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림

- 교구의 청소년 사목 예산이 10% 정도이며 이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임

다. 대부분의 대학의 가톨릭 학생 조직은 미비하고, 대학 가톨릭 학생회의 연합 조직도 유명무실하고 신자 학생들 간의 상호 교류나 친교가 이루어지지 못함

라. 개신교의 대학 선교조직과 활동에 비해 가톨릭교회의 대학 선교활동은 매우 부진함

참고 <개신교의 대학 선교 조직>

* 개신교 KCCC(한국 대학생 선교회, 1958년 설립) 초교파적인 학생 선교 조직 전국 50개 지부, 350여 대학에서 20000명의 대학생 신자 들이 활동, 10대 선교부, 의료 선교부, 스포츠 선교부, 음악 선교부, 북한 것염소 보내기 본부등 분야별 선교 조직, 지역 교회를 돕는 프로그램 개발

* CAM (대학선교회) 및 UBF(대학 선교조직)-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1990년 3000명의 여름 겨울 방학의 필립핀 등 단기 선교(중단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4. 추진 원칙과 방법

가. 추진 주체 : 각교구 청소년 사목 계획에 따라 한국 평협 복음화 분과위원회와 각 대학 가톨릭 교수회 조직과 학생회 조직이 연계, 지원, 보완하는 할

동 방식

나. 추진 원칙

-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올 수 있는 사목의 필요성 - 청소년을 종속적 존재나 피교육자로 보는 관점의 탈피, 같은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가톨릭 정신을 담은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할 필요성(인천 가톨릭 청년조직 사무국장 홍현웅 신부)
- 청년 대학생의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흥미 있는 방안 마련- 컴퓨터와 게임 인터넷, 댄스와 뮤직, 힙합 문화에 젖은 청소년들에게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 지양하고 딱딱한 형식적인 전례 지양
- 본당 청소년 사목은 부수적인 사목이 아니라 최우선 중심 사목으로 격상 시켜야함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 그들의 감각과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청소년 스스로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사도로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 방법 마련)

다. 각 교구별 시노드에서 제시한 청소년 사목에 관한 다각적인 제안을 수용할 필요성 증대

- 광주대교구의 청년 리더십 교육
- 인천교구의 바다의 별 청소년 수련원 운영 모형
- 인천교구 21세기의 복음화 대안(미래사목연구소, 차동엽 신부,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13차 총회 2004,8.12-14) 자료 참조
- 대구대교구 - 빠스까 성서 모임
- 인천교구 비다 네바 (새로운 삶)프로그램

5. 추진 계획 : 캠퍼스 복음화 종합 프로그램 개발

1 단계 : 대학 가톨릭 교수 조직 파악 (캠퍼스 복음화 준비)

- 전국 각 대학 가톨릭 교수 조직의 현황 파악
- 전국 가톨릭교수회(회장 : 김용자교수) 협력

2 단계 : 대학 가톨릭 학생 조직 파악

- 전국 대학별 가톨릭 학생조직 및 현황 파악
- 각 대학 가톨릭 학생 조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 위원 협력)
- 대학 가톨릭 연합 조직 결성 문제 : 청년 연맹 조직을 통한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3 단계 : 각 교구별 청소년 사목 방침과 대학 복음화 프로그램 수합

- 적실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전 교회 차원의 정보 교환 상호 보완 프로그램 개발

4 단계 : 대학 복음화 종합 프로그램 개발

- 학생 지도자 수련회, 국내외 단기 선교 수련, 방학 이용선교 프로그램 마련
- 교회의 각종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의 공동 활용 방안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 교구 차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책 강구
- 젊은이를 매료할 만한 프로그램의 개발(청소년 복음화의 악순환 제거)
- 대학 청년들의 문화 동아리 운영 조직방안 강구
-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만남의 장을 마련

5 단계 : 캠퍼스 복음화 종합 프로그램 활용

가정사목분과위원회

<2004년 업무 보고>

1. 가정사목 위원회와 가정사목 담당 신부님과 실무자 워크숍 참가

일 시 : 2004년 10월 7일 - 10월 8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가정사목 위원회 위원장 이기현 주교님 주최.

전국 15개 교구 가정사목 담당 신부님, 담당자 및 행가운, 가정 관련 연구소 담당자 참가

1) 가정에 관한 주교회의의 2005년도 공동사목교서 초안 검토

2004년 대림절 발표

2)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FABC) 제8차 정기총회 메시지- “생명 문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가정” 성찰

3) 가정사목 진단과 가정사목 전국 네트워크 형성

<2005년 사업계획안>

1. 가정을 주제로 하는 전국 규모 모임 준비
일 시 : 2005년 5월 15일 예정
주 제 : “가정 : 사랑은 평화를 건설”

여성분과위원회

<2004년 업무 보고>

1. 여성분과 위원 5명 위촉
이인숙(비비안나): 건국대학강사 011-9116-4085
이상화(테오도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책임교수 017-256-4006
신영숙: 서울여대강사 011-9067-0351
박춘자(소피아): 가정폭력상담소 화해의 집 원장 019-254-4889
정찬남(모니카): 서울평협 교육분과 위원장 011-326-0800
2. 전국 각 교구별 연락 가능한 여성대표명단 확보.
3. 한국평협 제 3 차 상임위원회 (11월 제주) 때 주교회의 여성소위의 한분을 초청하여
“한국천주교 여성사목 방향정립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보고” 발표 결정.
4. 전국 평협 회장단 부인 모임 결성
전국 평협 회장 부인들이 제주에서 처음 한자리에 모여서 회장단 부인의 만남을 가졌다. 부인들은 남편의 신분 때문에 본당 공식 직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분들과 함께 혹은 이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연구 중.

<2005년 사업계획안>

1. 각 교구 혹은 본당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여성분과위원회의 활동 모델방안 개발.

각 교구의 정보를 수합하여 참고 할 것임.

2. “가톨릭 여성 평생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 팀 구성.
3. 가톨릭 여성 지도자 네트워킹 구성 (전문인력 pool구성).
4. 각 분과위원회에 여성위원 한 명씩을 추천하여 양성평등 할당 추구.

사회사목분과위원회

<2004년 업무 보고>

- 1) 2004/7/5일부로 사회사목분과위원장 조성갑(베드로) 임명장 받음.
- 2) 2004/8/28(토)~29(일)
2004-2차 전국평협 상임위원장회의에 참석.
곳 : 경남 양산시 정하상바로영성관.
- 3) 2004/9/11(토)
전국평협 분과위원장회의 참석.
곳 : 명동 가톨릭회관 5층 전국평협사무실.
* 사회사목분과에서는 각 교구평협 사회사목관련분과위원장
연락Network 구축, 정보교환 및 안부교환, 북한이탈주민중
청소년선교에 중점을 두기로.
- 4) 2004/9/16(목)
각 교구평협사무실에 E-mail 또는 우편으로 연락.
(사회사목관련분과위원장 연락처 파악위해서)-대구대교구,
인천교구, 제주교구에서 연락받았으며, 현재 서울,부산,안동,
인천,대구,제주교구는 파악되었음.
- 5) 2004/9월말에 전국평협 사회사목분과 총무로 이요안(요한) 임명장 받음.
- 6) 2004/9/30(목) 오후8시~9시30분.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월례세미나에 참석.
곳 : 인천교구청 신청사 4층(인천 답동)
주제 :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종교인의 역할.
강사 : 배충남 팀장(안성 하나원 교육팀)

- * 종교교육은 전무한 상태라함.(부작용때문에 조금씩 해 오던 것도 폐지)
- 7) 2004/10/9(토) 오전 10시~
서울대교구 가족사랑 등반대회에 참가.
곳 : 관악구 신림동 소재 삼성산 성지
- 8) 2004/10/21(목) 오후 2시~5시30분.
2004 사회복지정책 심포지움에 참석.
곳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제 : 정부의 미신고복지시설정책에 따른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정책제안.
- 9) 2004/11월/26일(금)~28일(일).
2004-3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에 부부동반 참석예정임.

<2005년 사업계획안>

1. 그동안 사회복지분과이던 것이, 사회사목분과로 변경되었음.
(서울대교구 2004년도 사목교서 세부지침중 4.사회사목을 강조.)
* 참고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를 보면, 산하에 10개의 위원회가 있음.(경찰사목·노동사목·단중독사목·민족화해·빈민사목·사회교정사목,·사회복지·정의평화·한마음한몸운동본부·환경사목)
2. 그동안 서울평협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전국평협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음. 사회사목분과위원장으로 개칭하면서,전국평협과 서울평협의 사회사목분과위원장을 따로 분리했음.
3. 전국평협 사회사목분과위원회 구성건.
위원장 : 조성갑(베드로) H.P 017-238-5043
위 원 : 전국 각 교구의 사회사목관련 분과위원장
총 무 : 이요안(요한) H.P 011-337-4460
4. 사업계획(안)
 - 1) 전국 평협 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 2) 사회복지분과를 사회사목분과로 개편유도
 - 3) 사업개발 : 교구별 사회사목부 및 본당별 활동과 충돌 없이 조화로우음을 꾀하며, 변화를 유도

4) 주교회의 및 각 교구장의 사목지침과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5) 평협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보교환

6) 전국차원의 Seminar 개최 등의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 구상은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것임.

* 사회사목분과에서는 각 교구평협 사회사목관련분과위원장 연락Network 구축, 정보교환 및 안부교환,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선교에 중점을 둘 것임.

* 참고 : 본당내 사회사목분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부서(10개)의 장을 분과장으로 하며, 전체 사회사목분과장을 본당 부회장으로 임명하기를 제안한다 (서울대교구 2003 본당 사회사목분과 하반기 연수회에서 교구차원에 바라는 사항으로 건의된 내용임).



■ 에밀 폴 체릭 대주교 약력 ■

▲1947년 스위스 시옹 교구 출생 ▲1974년 사제수품 ▲1978년 우간다, 한국, 방글라데시 주재 교황대사관 서기관 ▲1996년 부룬디 주재 교황대사 임명 및 대주교 승품 ▲200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자메이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바하마 주재 교황 대사 겸 앤틸리스 교황 사절 임명 ▲2001년 바베이도스, 안티가 바부다, 수리남 공화국, 세인트키츠네비스 주재 교황대사 겸 앤틸리스 교황 사절 임명 ▲2004년 5월22일 주한 교황대사 임명

interview
인터뷰

신임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57) 대주교는 12일 서울 중곡동 주교회의의 사무처에서 개막된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 참석, 한국 주교단과 첫 공식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한국교회가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릭 대주교는 교황과 인류복음화성을 대신해 세계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크나큰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들에서도 선교 요청이 있을 때 기꺼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체릭 대주교는 또 한국 주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인사와 축복을 전하며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교황님께서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한국 신자들의 믿음과 사랑에서 커다란 위안을 얻고 계시다"고 말했다.

체릭 대주교는 아울러 23년전 한국주재 교황대사관에 부임해 3년간 일한 경험 자체 삶에서 참으로 풍요로운 시간이었다며 교황대사로서 겸손하게 한국교회와 한국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지난 5월2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제9대 주한 교황대사로 임명된 체릭 대주교는 6일 오전 11시30분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한국 교회는 젊음과 역동성이 넘치는 곳입니다.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거듭

한 한국교회가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평화를 건설하고 복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한 교황대사로 임명돼 지난 6일 입국한 에밀 폴 체릭 대주교는 14일 교황대사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역동성과 활력을 겸비한 한국교회의 역량을 강조하며 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주도적 역할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미 지난 1981년부터 3년간 주한 교황 대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체릭 대주교는 “20년간 한국을 떠나 있었지만 한국에 머물며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체험했던 당시 3년은 제 인격과 삶에 큰 영향을 준 시기였다”고 회상하면서 “한국 신자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돕는 동반자, 한국에 대한 교황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전달자로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20년 만에 다시 보신 한국은 어떻습니까?

공향을 빠져 나오는데 너무 많이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또 11일 이한택 주교님이 교구장좌에 착좌하신 의정부교구 신설 미사에 참석해 수많은 사제와 신학생, 젊은 신자들을 만나면서 한국교회의 젊음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1981년부터 84년까지 주한 교황대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할 때 추억을 들려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1984년 교황님께서 방한, 한국 순교자 103위를 시성한 것입니다. 여의도광장에 모인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늘 친절하면서 따뜻한 형제애를 베풀어주던 한국인과 함께 하며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나눴던 3년간은 제 삶과 인격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후 교황님과 함께 칠레를 방문했다가 저는 척추를 심하게 다쳤는데 로마로 돌아갔다가 우연히 한국인 한의사를 만나 기적적으로 완치된 일이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제가 한국을 20년간 떠나 있었지만 늘 한국인의 따뜻한 사랑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Q 그간 여러가지로 어려운 제삼세계에서 교황청 외교관으로 활동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와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었습니다?

1996년부터 4년간 근무한 부룬디입니다. 끊임없는 내전과 폭동으로 총인구 700만 중 100만명이 수용소 생활을 할 정도로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교와 신부를 무차별 살해하는 극심한 인종 차별이 벌어지는 위험 속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산모를 위해 집 400여채를 지어 준 것이 교황대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극심한 고통,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굳은 신앙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한국 신자들도 이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십시오.

Q 한국교회가 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쇠락하는 유럽교회를 되살리는 동시에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황님은 새복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며 특히 한국교회에 큰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기적같은 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는 이미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평화와 일치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교회 전체의 내적 개혁과 회개가 우선돼야 하고 목숨마저 내놓으신 예수님을 매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민족 일치와 통일을 염원하며 북방선교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야 할 것입니다.

Q 주한 교황대사로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더불어 전개하실 활동이 궁금합니다.

한국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동반자로 함께 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교황님인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교, 사제, 수도자, 신자 모두와 늘 가까이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대사로서 정부와 교황청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Q 즐기는 운동은 무엇인지, 어떻게 여가를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발 1000m에 위치한 인구 150명밖에 안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산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가가 생기면 산에 오르거나 산책을 즐깁니다. 20년 전 한국에 서기관으로 머물 때도 서울에 있는 산을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 강산이 많이 변했겠지만 시간이 가면 옛 산길을 더듬으며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해보고 싶습니다.

【평화신문·박주병 기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아가운동)

- 아가운동 활동과 성과
- 표장(標章 : Emblem 해설)
- 우리의 결의
- 서울 평협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
- 제1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공모전
- 강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 손병두 회장 -
- 명설교 명법문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 손병두 회장 -
- 칼럼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 손병두 회장 -
- 친교의 영성을 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 최홍준 사무총장 -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아가운동) 활동과 성과

1. 취지

서울대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아가운동(‘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사회의 기초단위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건전하고 아름다울 때 사회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양산되기 시작한 이혼, 결손가정의 증가 등 가정의 소중함이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고 가정의 파괴와 생명정시 풍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혼율,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율, 하루 4천여 명에 달하는 낙태 건수 등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먼저 솔선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이 운동을 사회 저변으로 파급시켜 나감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 추진방법

따라서 우리 평신도들은 지난 3월 한국평협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국 각 교구 평협별로 각 교구가 처한 상황과 연계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갈 서울평협에서는 아울러 평협조직에 가정사목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고 가정관련 연구소를 설치,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내고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평협이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지만 모든 가정과 모든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추진내용

1)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1. 우리는 매일 가족구성원을 위해 화살기도를 바치겠습니다.
1. 우리는 매일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성서를 가족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매일 가족간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매일 생명문화의 확산과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의의 모든 단체와 협력하겠습니다.

2) 가정기도문 배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기도문 20만장 제작하여 배포.
5만장 추가제작.

3) 엠블렘 제작 홍보

이 캠페인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엠블렘 제작



4) 스티커 제작

엠블렘을 활용한 차량 부착 또는 다른 용도로 스티커 30만장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
5만장 추가 제작



5) 엠블렘을 사용해서 T셔츠를 제작해 각 본당 주임신부, 학교 등에 보급
각 본당 체육대회나 단체 행사시 주문하면 제작해서 보내줌.
(T셔츠 사진)

6) 제1회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 공모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신자는 물론 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진공모전 개최. 11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 공모, 전시회는 12월10일부터 18일까지.

장소: 우리은행본점 지하2층 은행사박물관(서울중구 회현동)

주관: 가톨릭사진가회

후원: 문화관광부, 우리은행

7) 아가운동 실천, 가족사랑 등반대회

10월9일 오전10시부터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

미 사: 염수정주교와 지구장신부, 지도신부등 주례.

참석자: 지구회장, 본당사목회장, 단체장, 평협임원, 일반신자 등 4백여 명 참석, 성황리에 행사 마침. 2005년부터 매년 가족간의 건강과 화목. 사랑을 염원하는 가족 등반대회 개최예정.

4. 마무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름다운 가정 건설을 위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기본 취지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이 가는 곳으로 사회가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포이며, 교회의 중심이 바로 가정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해나갈 때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전개하고, 교구의 벽을 넘어서 모든 교구 평협과 교회 내 운동·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결실이 매우 클 것이며, 시너지 효과 또한 엄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모든 구성원과 신자들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평협과 전국평협은 이미 지난 8월 20일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FABC) 제8차 총회 때 손병두 회장을 통해 각국 주교님 등 고위 성직자와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 운동 엠블렘이 찍힌 티셔츠를 나누어준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표장(標章 : Emblem 해설)

1. '사랑'의 표징인 하트를 그리며 마주 잡은 손은 가정과 생활주변에서 가족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을 키우고, 이 사랑이 이웃에 번져나가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빛을 내뿜는 모습은 '가정의 두 기둥'인 부부를 포함한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가꿔나가고,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과 함께 일치를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합니다.

2. 이는 또한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이 이룩한 '나자렛 성가정'을 닮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기도생활이 '가정교회'에서 계속될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이 실현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 하트 안의 머리부분은 교회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람 인(人)자 모양으로 벌린 다리는 지체를, 하트는 사랑, 하트에서 내뿜는 여덟 개의 점선은 산상수훈의 여덟가지 행복과 '빛의 자녀'들을 상징하며, 붉은 색은 뜨거운 열정을, 흰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사회는 오늘날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하루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해서 이혼율이 세계 두 번째이고, 출산율은 1.17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4천명 이상의 태아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공동체인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도 건강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위기는 곧 나라의 위기이며 교회의 위기입니다.

2001년 가을부터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전개해 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4년 3월 13일 서울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가정기도를 바치겠습니다.
1. 우리는 매일 가족이 함께 성서를 읽고 대화하겠습니다.
1. 우리는 가정 성화를 위해 교회, 사도직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우리는 이번 총선거에서 가정이 건전한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를 4·15총선거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바꾸었음. 우리는 생명문화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4년 3월 13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평협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및 종로구청과 2004년 7월 20일(화) 11:00 종로구청 회의실에서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 조인식을 갖고, 종로구 체부동에 소재한 '토속촌(土俗村)'에서 "3대사랑 실천 1호점" 개점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날 조인식 및 현판식에는 서울평협 손병두회장, 유세희 시민회의 공동대표(한양대 부총장), 김충용 종로구청장, 장, 박진열 한국일보 편집국장, 백창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명호 토속촌 사장(3대사랑 실천 1호점 음식점), 종로구의회, 한국음식점 중앙회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은 3대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할 경우 해당 식당에서 음식 값을 일부 할인해 주는 캠페인이다.

서울평협 손병두(요한 보스코) 회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는 부모와 부부, 자녀들이 함께 대화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런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돼 노부모들이 소외되지 않고 가족간에 정과 사랑이 넘치고 대화가 늘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은 심각한 핵가족화와 가족해체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변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인 3대 가족(부모, 부부, 자녀)들에게 '가족 화합을 위한 외식문화 혜택'을 줌으로써 건전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능도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평협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의 모임, 종로구청등은 앞으로 매월 이달의 3대 가족 행사를 개최, 국민의 존경과 신망이 두터운 저명 인사의 3대 가족을 초청하여 사회지도층이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과 그들만의 가족사랑 비결을 소개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제고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가족사랑 실천운동을 음식점 뿐만 아니라 고궁, 박물관, 놀이동산, 영



화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켜 3대 가족을 위한 사회, 문화적 혜택을 늘려나가고, 금년 10월경에는 3대 가족걷기대 등 연계사업도 개발하여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2004년 7월현재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음식점(아직까지는 종로구내 소재 음식점이 대부분임) 토속촌, 하림각, 종로명옥, 산촌샤브, 명동칼국수, 한성관, 곰보냉면, 광화문가든, 산내리, 오감도, 한일관등 11개 이며,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3대 가족사랑 실천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참여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제1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 공모전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일궈가자는 범국민적 캠페인에 나선 서울평협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주제로 범국민 사진 공모전을 펼쳤다.

가정이 건강해야만 우리 사회와 국가도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전제아래 건강가정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서울평협은 건강한 가정을 주제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사진공모전을 열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사진 공모에 나섰다.

공모전에 출품한 사진을 선별해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지하1층 은행사박물관 앞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갖고 12월 10일 오후3시 전시회 개막식에 맞춰 시상식을 가졌다.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일궈가자는 범국민적 캠페인에 나선 서울평협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주제로 범국민 사진 공모전을 펼쳤으며 종파와 지역, 남녀 노소를 초월, 고르게 참여하여 5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건강한 가정을 주제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사진공모전을 앞으로 매년 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문화관광부와 우리은행의 후원으로 마련되며 시상식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하여 대상 1등에게는 상금 1백만원과 상패가 수여 되는 등 총 50여명에게 각각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사진공모전 영예의 대상은 홍정숙(충남 천안)씨가 수상했고 김순규(군포시), 고숙자(전주)씨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진공모전에 나선 서울평협 손병두회장은 “가족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자신들의 가정을 소개하고 또 그 사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이 사회에 일깨워 주는 것도 아름다운 가정을 확산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많은 가족들이 이번 사진 공모전에 참석해서 가족애와 가정의 소중함을 이웃과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손 병 두(오한보스코 · 한국평협 · 서울평협 회장)

1. 들어가면서

기도 :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오늘 청주교구 가정대회를 통하여, 이 모임에 함께하거나 하지 못한 모든 가정들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서로 기도하고 대화하며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 찬미예수님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가정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굳이 저더러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평협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청주평협의 변광수 암브로시오 회장님께서 성가정 특강을 해달라고 전화로 부탁을 하셨을 때는 얼떨결에 그리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막상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께는 참고 들으신 것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2. 위기의 우리 가정과 병든 우리 사회

요즘 우리 한국사회를 보면 아름다운 것보다는 더러운 것이 더 많고,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4백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와 1백만에 달하는 청년실업자들은 줄어들 줄 모르고, 생활고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시장 상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남대문시장 성당 총회장을 비롯하여, 동대문시장 평화시장 수산시장 등 6개 시장성당(준본당) 총회장님들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요즘 경기가 나빠 가게 문을 닫거나 점원 없이 직접 장사를 하느라고 신자들이 성당에 나오지 못한다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참으로 살기 힘든 때라고 하겠습니까(‘명퇴자 남편’ 이야기).

얼마 전 유명철이라는 청년이 22명이라는 무고한 사람을 연쇄살인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저 자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심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도 태어날 때는 아주 귀여운 아기로 아빠·엄마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을 터인데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부모 된 한사람으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쌍이 결혼하는 동안 한 쌍이 이혼하여 이혼한 가정이 한집 건너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 파괴와 해체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출소년과 소년가장이 증가하고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낙태율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하루에 4천명의 태아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출산율도 급격히 하락하여 세계 최하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 인터넷 사이트는 안방까지 파고들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TV 드라마는 불륜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고 있으며, 러브호텔 등 각종 퇴폐업소가 시골 구석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관계가 사랑보다는 상품화되어 매매되고 있고 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노인들은 푸대접을 받으며 설 땅을 잃고 있습니다(‘3등아 잘 있거라 6등은 간다.’ 이야기). 생활고로 인한 자살도 있지만 젊은이들의 집단자살, 사회 저명인사들의 계속되는 자살과 인터넷상에 자살사이트가 버젓이 죽음을 부추기고 있는 생명경시 현상을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약과 폭력

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모방형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3.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이상과 같이 병들어 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막연히 정부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지, 하고 뒷짐을 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루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커다란 암 덩어리처럼 되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자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난 3월 13일 전국평협 정기총회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아가운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구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실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을 주제로 택한 것도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교구장님들의 사목지침을 보면 한결같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난 8월 대전에서 개최된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FABC) 제8차 총회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가정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한국 주교회의도 2005년도 사목교서를 "가정" 을 주제로 해서 대림 첫주일에 주교단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장상들께서 오늘의 가정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직접 나서야 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ME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ME운동은 1950년대 말 스페인에서 가브리엘 칼보 신부님께서 문제아동들을 보살피게 되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아동들을 보면서 이 문제아동들을 내놓는 근본 원인이 가정에 있음을 착안하여 문제의 근원인 가정을 먼저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운동이 라틴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오늘날의 ME운동으로 정착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부부도 1977년 3월 우리나라에서 제1차 ME 주말교육에 참가하는 은총을 받았고, 그때부터 ME 봉사부부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ME 가족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결혼한 지 9년이 될 때였는데, 우리 부부도 겉으로는 잉꼬부부처럼 보였고, 주일날 성당도 열심히 나가는 신자처럼 보였지만 ME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속으로 빈껍데기 깡통 부부이며 신자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혼인성사의 참다운 의미와 우리 부부관계가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인지, 또 우리 부부와 주님과 관계가 진정 사랑으로 맺어진 것인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하느님의 은총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 계속 ME 봉사를 하는 동안 한국 ME연구소 대표, 전국 ME 대표, 아시아 ME 대표로 봉사하게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평협 회장으로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은총도 ME운동을 한 덕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ME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을 시작하신 스페인의 칼보 신부님과 또 이를 지금처럼 발전시키신 미국의 책갈러거 신부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나라를 위해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1970년대 위기의 가정과 병든 사회를 경험할 때 ME는 산소처럼 신선하고 강한 힘으로 미국의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치유해가는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ME가 가정과 사회에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미국의 가정과 사회를 살리게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치유의 물결이 우리나라의 가정과 사회에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헌신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시아 ME 대표 부부로 봉사할 때 미국 대표 부부는 남편이 건강이 나빠 여행 때마다 산소통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고, 그 부부를 돕고 애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다른 ME가족들이 그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서로 돕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세계 ME 대표도 미국 부부였는데 그 분은 큰 회사에 다녔는데 임기 동안 휴직을 하고 ME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ME대표도 큰 회사에 다녔는데 작은 회사로 옮겨서 시간여유를 갖고 봉사 활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때 저는 아주 바쁜 큰 증권회사 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ME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시간여유가 있는 경제 연구소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평협 회장을 맡게 되니까 주님께서서는 전경련 고문자리도 떠나게 해서 평협 일에 전념하도록 배려해주심에 무어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먼저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활력소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4.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인 가정은 당연히 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 가정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25절에서는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지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고,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큰 교회가 하느님과 하나로 일치될 이루듯이 우리 부부도 한 몸을 이루어 일치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밀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싸움만 한다면 그 속에서 자녀들은 사랑을 배우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문제아동으로 빛나가고 말 것입니다.

- 우리 가정은 거룩해야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사의 은총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 가정공동체 역시 이런 성사의 은총을 받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협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서를 읽으며 대화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가운동'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 바로 가정 안의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목주기도를 바치고 삼중기도를 바치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그 가정은 올바르게 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 집안에서 성서를 읽고 성서대화를 하면서 하느님과 일치될 이룰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 우리 가정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큰 교회가 모든 인종이나 종파에 관계없이 열려 있듯이 우리 가족 관계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정 문제의 대부분이 가족간에 대화 부족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족과의 대화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계십니까? 가장인 남편은 직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 부인은 취미생활과 집안 살림을 하느라고 어떤 분은 맞벌이를 하느라고 바쁘게 살게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교공부, 과외공부로 바쁘게 지내다보니 가족끼리 만날 수도 없고, 거기에다 TV나 인터넷까지 시간을 빼앗으니 함께 대화할 시간이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대화가 없으니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 남남처럼 지내다가 불만이 축적되어 나중에 이것이 폭발하여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난번 하상신앙대학에서 대전교구 유흥식 주교님께서 강의 중에 요즈음 부부들의 특징이 "3무(無)"라고 말하셨는데, '3무'란 대화가 없고, 싸움이 없고, 육체적 관계가 없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대화가 없다는 것은 친교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 남남으로서 일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가정은 사도로부터 이어져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도 큰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내려오듯이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 부부들이 신앙은 자유이므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없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듯이 어릴 때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교 때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랄 때 처음 갈대 바구니에서 발견되어 유모로 들어간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유대인 교육을 2~3년 시킨 것이 그 뒤 40여 년간 이

집트 왕실에서 이집트인으로 교육을 받은 것보다 더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작업장에서 유다인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살인하고 맙니다. 이처럼 어릴 적 신앙교육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에 보내면 신앙교육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주일학교 교육이 만족스럽다고 믿어도 좋습니까?

그것마저도 과외 공부다, 입시 준비다 하여 주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주일날 미사마저도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스승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이렇게 자녀의 신앙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방치해두니 냉담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오스딩 성인은 '가장은 가정교회의 주교' 라고 하셨습니다. 요즈음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교회의 주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이 처음으로 신앙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가정교회',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인간적인 덕행과 그리스도 사랑의 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가정이 신앙의 학교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도 아이도 적게 낳으니 우리 교회에 젊은 신자들이 줄어들고, 교회는 급격하게 고령화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5.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 : 믿음, 희망, 사랑

우리는 자주 나자렛의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성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자렛의 예수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또 우리가 성가정의 어떤 점을 따르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예수님을 키워냈습니다. 요셉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요즈음 말로는 입양아입니다.

여러분, 입양아를 키우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성모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라고 말씀했을 때 처녀의 몸으로 어찌 그

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예수님을 낳아 잘 키우셨습니다.

우리의 속된 잣대로 보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 친아버지가 아닌 남편 밑에서 아기를 키워야 하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실 때 가장 비천하고 바람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외양간의 구유 속에 눕혀져야 했습니다.

요즘처럼 시설이 잘된 산부인과 병원의 좋은 침대에 눕힌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또 낳자마자 헤로데왕의 살인 명령을 피하여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무덥고 건조한 머나 먼 사막 길을 걸어서 피난을 가야했습니다. 이집트로 피난 간 예수님의 가족은 요즈음말로하면 비자 없이 입국한 불법 이민가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이민가족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살 때 요즈음말로 이야기하면 가출 소년이 됐고,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사흘씩이나 헤매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매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들을 만난 성모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들의 시신을 안으신 성모님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어떤 어머니가 멀쩡했던 사랑스런 아들이 어느 날 깡패에게 끌려가 얻어맞아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았다면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나자렛의 성가정은 온갖 인간적 고통과 어려움이 겹친 고통과 아픔의 가정이었지, 순탄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라고 합니까. 그런 온갖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성가정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자렛 성가정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 강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해야 할 간절한 소망을 가졌고, 이를 이룰 때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어낸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자렛 예수님의 가정처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라는 강한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 현대의 평신도 성인들

현대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과학기술 우선주의, 가치관의 전도, 생명경시 풍조, 쾌락주의와 성 개방,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한 종교 다원주의 등장 등 20세기

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가톨릭교회가 훌륭한 삶의 모범을 보인 평신도에게 배운 은총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 2001년 10월 21일 교황 요한 바오로2세계서는 교황청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주재한 시복식에서 루이지 베르타메 콰드로치(Luigi ; 1880-1951)와 마리아 코르시니(Maria ; 1884-1965)부부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사에서 순교하지 않은 채 삶을 마친 평신도 부부가 교회의 공식 공경의 대상이 되는 복자의 반열에 오른 것은 이들 부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루이지와 마리아 부부는 1905년에 결혼해서 4년 동안에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후 네 번째 아기를 가졌을 때 의사들로부터 낙태를 하지 않는다면 산모가 목숨을 잃을 확률이 99%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들 부부는 이를 거부했으며, 마리아는 1914년에 딸을 낳은 후에도 51년을 더 살았습니다.

네 자녀 중 셋을 사제와 수녀로 키운 이들 부부는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후에는 영적 지도신부의 조언에 따라 부부 관계를 갖지 않고 지냈으며, 남편 루이지는 1951년 71세로, 아내 마리아는 1965년 8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복식 미사 때 사제로 키운 두 아들 필립보(Filippo)와 체사레(Cesare), 그리고 수녀가 된 딸 엔리체타(Enricetta)도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이 날 교황님께서는 교황권고 ‘가정공동체(Familiaris counsortio)’ 반포 20주년을 맞아 시복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시복식 강론을 통하여 이들 부부가 “일상의 삶을 비범한 방식으로 살았다”고 추양하면서도 이들 부부는 부부가 함께 성덕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길이 아름답고 풍부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선익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①성체 성사가 생활의 중심이었고, ②성모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사랑을 지녔으며, ③저녁에 가족 공동으로 묵주기도를 바쳤고, ④주위의 사람들에게 영신적인 조언을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금년 5월 16일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절을 거부해 낙태 반대의 상징이 된 여성을 포함, 6명에게 성인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 부인은 4번째 아기를 출산한지 1주 만인 1962년 39세의 나이에 숨진 이탈리아

리아의 소아과 의사 잔나 베레타 몰라라는 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부인이 자궁 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임신하면 위태롭다며 임신 중절을 권유 했으나 그 분은 자연분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날 84세가 되는 교황님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찬란한 햇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시성식을 집전하면서 운집한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베레타 몰라를 성인으로 선언하고 그분의 '극진한 희생'을 낙태 반대와 생명수호의 본보기로 칭송했습니다.

베레타 몰라 성녀에 의한 첫 기적은 앓고 있던 브라질 여성이 1977년 4번째 아기를 임신한 뒤 나은 것이며, 두 번째 기적은 2000년에 일어난 것으로 양수를 잃어버린 브라질 여성에게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몇 달 전에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 부부를 복자품에 올리기 위한 하느님의 증인인 가경자(可敬者 / Servi di Dio, 하느님의 종), 곧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하는 장엄 미사를 루이니 가밀로 추기경님의 주례로 봉헌하였습니다. 이 때 이분들의 아들 신부도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순교자가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았던 평신도 부부가 가경자나 복자나 성인품에 오르는 것은 이 시대에 가톨릭교회가 평신도들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앞에서 보신 부부처럼 훌륭한 부부 생활을 통하여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들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모두 성인이 되기로 결심해봅시다.

7. 맺으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끝맺기 전에 몇 가지 평협 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협은 '아가운동'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확신 아래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① '아가운동' 가정 기도문과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여러분의 승용차에 꼭 붙이시고, 이웃에게도 권유해서 이 운동이 범 국민 운동이 되도록 해나가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가정 기도문을 가지고 밤 10시면 가족이 모여 꼭 기도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② 지난번 서울 종로구청과 불교 평신도 단체와 시민 단체인 '시민회의'와 공동으로 3대 가족사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함께 음식점에 가면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로구 11개 음식점이 가입하였고 더 확산해 나갈 추세입니다. 앞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고궁, 박물관, 음악회 등에도 3대 가족이 함께 갈 경우 할인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 ③ 평협의 회원 단체인 가톨릭사진작가회가 주관하여 문광부와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후원한 가운데 제 1회 가족사랑 사진공모전을 전 국민을 상대로 개최하기로 하고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시상식은 12월 10일에 있게 됩니다. 많은 응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④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제 21회 '가톨릭 대상' 시상상을 위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평신도를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중에 성인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 ⑤ 지난 9월에 시작한 '하상신앙대학'은 명동성당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강좌를 열고 있는데 매우 인기가 높아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하였고, 그 중에 30%가 개신교 목사, 불교 스님을 포함한 외인들입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멀리 부산에서도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테이프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⑥ 이제 평협이 탈북자를 돕고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점점 늘어나 6000여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197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우리 천주교회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서 이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다시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지난 10월 21일에 명동성당 2호스트 홀에서 가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월 1회씩 갖기로 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생생하고 비참한 인권 상황을 들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 ⑦ 오는 11월 14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주일날 2차 헌금으로 평협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의 헌금 실적으로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우편 통신료와 각 단체 행사 지원금을 주고나면 독자적인 대 사회사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평신도 주일날 2차 헌금을 좀 많이 내주십시오.

이제 끝으로 여러분께 미리 배포해 드린 가정 성화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어 드리고 저의 이야기는 끝낼까 합니다. 이 기도문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80년 시노드에 즈음해서 만드신 것으로 가정 성화를 위해 열심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주 하느님,
하늘과 땅위의 모든 가정은 당신에게서 생겨났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샘이신 성령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가정이 세세대대로
생명과 사랑의 참 성소가 되게 하소서.
당신 은총으로써 부부의 생각과 행위를
자신과 온 세상 모든 가정의 선익으로 이끌어 주소서.
젊은이들이 가정 안에서 건실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사랑이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견고해져,
우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소서.
나자렛 성가정의 전구로써, 가정 안에서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사랑이신 당신께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손병 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금년 5월 16일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을 거부해 낙태반대의 상징이 된 여성에게 성인칭호를 부여하는 시성식(諡聖式)을 주재했습니다. 네 번째 아기를 출산한지 한 주간 만에 39세의 나이에 숨진 이탈리아의 소아과 의사 잔나 베레타 몰라라는 분인데, 의사들은 그녀가 자궁암에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임신하면 위태롭다며 중절을 권유했으나 그녀는 자연분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베레타 몰라를 성녀로 선언하면서 교황님은 그녀의 '극진한 희생'과 소박하면서도 심오한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칭송한 바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혼율이 높고, 이로 인한 가출청소년과 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각종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이며 하루에 4천여 명의 새 생명이 낙태로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집단동반자살이 늘어나고 있으며 폭력과 살인 등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국가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한 '아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 역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 가정이 아름답게 변할 때, 그 가정들로 구성된 사회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변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하루 중 밤 열시가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오순도순 대화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는 데서 출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생활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짱', '몸짱' 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 '가짱' 을 위해서 하루 중 30분정도의 시간을 쓰는데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화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삶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정, 더 나아가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으로 발전해 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까!

(이 원고는 지난 11월 14일 제 37회 천주교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손병두 회장이 행한 강론 요지로서, 11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손병두 / 한국평협 회장 · 전 전경련부회장

얼마 전 유모라는 청년이 희대의 살인행각을 벌여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왜 우리사회가 이다지도 살벌하고 험악해지는 걸까. 무엇이 이 청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도 여느 사람처럼 산모의 힘든 산고 끝에 부모의 기쁨과 축복 속에서 태어났을 터이다. 그 축복받은 어린 아기가 어떻게 흉악범이 되고 마는 것인가.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초단위와 만난다. 순진무구한 아기는 가정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회를 알고 적응해 간다. 그가 만난 첫 사회공동체인 가정이야말로 그가 길러지는 가장 소중한 교육장이 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정은 점차 사랑이 메말라 가고 황폐화되고 있으며 가정과괴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가정이 핵가족화 되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이 소멸되고 있다. 이혼율은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이로 인한 가출청소년과 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각종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이며 하루에 4천여 명의 새 생명이 낙태로 죽어간다고 한다. 집단동반자살이 늘어나고 있으며 폭력과 살인 등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가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50년대에 스페인에서 문제아동들을 돌보던 칼보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문제아동들을 아무리 뒷바라지해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문제아동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천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문제가정에서 문제아동이 나온다’ 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대화부족이 문제가정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효과적인 대화기법을 개발하여 교육시켜 나갔다. 이 프로그램이 ‘ME(메리지 엔카운터)운동’으로 정착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지금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도입 된지 25



년이나 된다.

최근 천주교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운동(‘아가’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 역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 가정이 아름답게 변할 때, 그 가정들로 구성된 사회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변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은 하루 중 밤 열시가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오순도순 대화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는 데서 출발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생활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바쁘고, 애들은 과외공부 하느라고 늦게 오고, 그래서 도무지 가족이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얼짱’, ‘몸짱’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 ‘가짱’을 위해서 하루 중 30분 정도의 시간을 쓰는데 인색해서야 되겠는가. 여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오히려 가정경제에 도움을 준다. 대화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삶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정, 더 나아가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으로 발전해 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것인가.

미국 펜실바니아에 펜실바니아 더치라는 독일계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는 3대가 한집에 모여서 3대가족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17세기 이민 올 때의 그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3대 가족사랑이 아픈 사람이 없는 마을, 범죄가 없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 지난번 서울 종로구와 시민단체인 ‘시민회의’가 주관하여 천주교, 불교가 참여한 가운데 ‘3대가족 사랑’ 캠페인이 시작됐다. 3대가 함께 음식점에 가면 할인해 주는 운동이다. 이미 11개 업소가 참가하였고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고양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건강한 가정을 통한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운동을 종교, 언론, 사회단체 및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전개해 간다면 우리 사회도 생명문화가 꽃피고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운동이 온 국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일보 「부일서론」 2004. 8. 10일자 8면)



친교의 영성을 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최 홍 준 /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무총장

1.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임의 사랑.

임의 향내, 그지없이 싱그럽고 임의 이름, 따라놓은 향수 같아 아가씨들이 사랑한다오.

아무렴, 사랑하고말고요. 임을 따라 달음질치고 싶어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아가1,2-4).

‘사랑’을 다룬 지혜 문학서라고도 할 구약성서 ‘아가’ 앞머리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 일부를 옮겨보았다. ‘해설판 성서’는 아가서 서언에서 “이 사랑은 인간 사랑인가, 아니면 하느님 사랑인가?”를 묻고 나서 “우리는 아가가 이 두 사랑을 뗄 수 없게끔 노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2004년 3월에 시작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을 줄여서 ‘아가운동’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는 ‘아가’가 아름다운 가정 ‘의 준말이기도 하거니와 하느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선물인 ‘아가’가 곧 ‘아가’이며, 구약성서 ‘아가서’의 내용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도 유의해서 붙인 이름이다. 요한 복음사가는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 요한 4,7-8)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사랑과 하느님 사랑,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친교의 영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에 충실하고 세계의 가장 깊은 열망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교회를 친교의 원천이며 친교의 학교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막 시작된 천년기에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교서 ‘새천년기’ 43)라며 ‘친교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친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친교는 먼저 ‘서로간의 사랑’(요한 13,34-35)을 통한 사랑의 증거로써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 신비 자체를 구현하고 계시하는 영역이 친교의 영역(‘새천년기’ 42)이다.

교황교서를 좀더 읽어보자. “...먼저 친교의 영성을 장려하고, 어디에서나 그것을 교육의 지도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곧 일반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교육하는 곳이든, 제단의 봉사나 봉헌생활자, 사목 활동가를 양성하는 곳이든, 가정과 공동체를 육성하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친교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마음의 관상을 가리킵니다.” ‘새천년기’ 43항은 계속해서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삼위일체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친교의 영성은 또한 우리 사랑의 형제자매들을 신비체의 심오한 일치 안에서, ‘나의 일부인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기쁨과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바람을 느껴 알며 그들의 요구에 마음을 쓰고, 그들과 깊고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교의 영성은 또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하느님의 선물, 곧 그것을 받은 형제자매를 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로 여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친교의 영성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양보하며’, 남의 짐을 져주고(갈라 6,2),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붙어 다니면서 경쟁심과 출세욕, 불신과 시기심을 불려일으키는 이기적인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전개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운동은 이와 같은 친교의 영성에서 출발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성삼위의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곧 형제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



하며, 사랑으로 가정과 세상을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신도들의 결의

오늘날 우리네 가정이 위기에 처한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의 교구가 가정성화를 위한 사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가운데, 2005년도 사목교서를 '가정'을 주제로 다루면서 주교단 공동으로 마련해 대립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04년 8월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제8차 총회도 "생명을 지향하는 아시아 가정"이라는 주제로 열려 "완전한 생명문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가정"이라는 문서와 "아시아의 하느님 백성과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의 목자들과 아시아 여러 지역교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제1순위로 내세운 가정문제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3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을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늘날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하루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해서 이혼율이 세계 두 번째이고, 출산율은 1.17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4천명 이상의 태아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공동체인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도 건강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위기는 곧 나라의 위기이며 교회의 위기입니다.

2001년 가을부터 도덕성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을 전개해 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4년 3월 13일 서울에서 제 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특히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지도층부터 바르고 건



전한 가정에서 나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가정기도를 바치겠습니다.
1. 우리는 매일 가족이 함께 성서를 읽고 대화하겠습니다.
1. 우리는 가정 성화를 위해 교회 사도직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우리는 이번 총선거에서 가정이 건전한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4. '아가운동'의 추진방법과 내용

전국평협 정기총회 참석자들은 위와 같이 결의하면서 각 교구 평협별로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평협 조직에 가정사목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고 가정·사회사목연구소를 설치,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내고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서울대교구 평협이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지만 모든 가정과 모든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 추진내용을 보면 전국평협의 결의 내용을 좀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까지 적시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시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 나갈 내용도 있다.

- 1)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 (1) 우리는 수시로 가족구성원을 위해 화살기도를 바치겠다.
 - (2) 우리는 매일 밤 10시에 가족들이 모여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성서를 가족과 함께 읽도록 하겠다. 같은 시각에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은 각자 있는 위치에서 가족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 (3) 우리는 매일 가족간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
 - (4) 우리는 매일 생명문화의 확산과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5)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의의 모든 단체와 협력하겠다.

2) 가정기도문 배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기도문 20만장을 4월에 제작, 배포한 데 이어 10월에 다시 5만장을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했다.

3) 엠블렘 제작 홍보

이 캠페인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엠블렘 제작, 홍보하고 있다.

4) 스티커 제작

엠블렘을 활용한 차량 부착 또는 다른 용도로 스티커 30만장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

5) 엠블렘을 사용해서 T셔츠를 제작해 각 본당 주임신부, 학교 등에 보급한 바 있다.

6) 심포지엄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함께 참가하는 범종교 연합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구현을 위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손병두 평협회장은 불교신도회장과 두 차례 회동한 바 있다.

7) 독후감 모집

교회 매체인 평화방송과 함께 가정 관련 서적을 읽은 독후감 공모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8) 사진공모전

평협 회원 단체인 가톨릭 사진가회와 함께 가정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12월 우리은행 본점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9) 3대 가족 사랑 캠페인

불교, 천주교 신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르는 3대가 함께 식당에 오면 한사람의 식사대금을 받지 않는 운동을 정부, 사회단체, 불교와 공동으로 전개. 앞으로 고궁, 박물관 음악회 등 입장권에도 혜택을 주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공익광고 추진

밤 10시 사랑의 종, 가족사랑시간 만들기 등 다양하게 캠페인을 벌인다.

11) 출산장려정책 대정부 건의

12) 생명윤리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및 확산

민법개정시 가정·가족보호조항을 삽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13)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 금지 운동

14) 함께 하는 운동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전개하고, 교구의 벽을 넘어서 모든 교구 평협과 교회 내 운동·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결실이 매우 클 것이며, 시너지 효과 또한 엄청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평협은 평신도사도직협회의 모든 구성원과 신자들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고 있다. 서울대교구 평협과 전국평협은 이미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제8차 총회 기간 중이던 8월 20일 손병두 회장을 통해 각국 주교 등 고위 성직자와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 운동 엠블럼이 찍힌 티셔츠를 나누어준 바 있다.

6. 전망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으로 아름다운 가정 건설을 위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기본 방향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이 가는 곳으로 사회가 간다”고 말하고 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포이며, 교회의 중심이 바로 가정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해나갈 때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의 구현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 그러나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성과의 양과 함께 질도 고려해야 하고, 영적인 측면을 소



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혼(魂)이 빠진 운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친교의 영성에서 추구할 수가 있고, 친교의 영성은 곧 일치(一致)를 말한다. 일치의 모범이신 성삼위의 친교를 본받아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의 일치를 더 깊이 살기 위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교황교서는 특히 “환상을 갖지 말라”면서 우리가 이러한 영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외적인 친교 조직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러한 외적 조직들은 친교를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없는 장치, 친교의 가면이 될 것입니다”(‘새천년기’ 43).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간의 사랑이 가족간에 꽃피어나고, 이 사랑이 이웃과 사회에 널리 번져갈 때,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은 찾아올 것이다.

(이 원고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발행하는 <사목> 잡지 2004년 연중기획 ‘가정사목’ 시리즈 11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의정부교구의 탄생

한국 가톨릭교회 사상 19번째 교구로서 의정부교구는 2004년 7월 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의정부 고양 파주 등 서울대교구 소속 경기도 북부 지역 8개 시군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교구를 신설하고 초대 교구장에 이한택 주교를 임명함으로써 설립됐다.

한국교회는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군중교구 신설에 이어서 15년 만에 새로운 교구를 갖게 됐으며 서울대교구는 1963년 수원교구 분가 이후 41년만에 새롭게 교구를 분가시키면서, 3개 북한 교구 외에 남한의 전체 교구 수는 16개로 늘어나게 됐다.

의정부교구는 교구 신설 발표와 첫 사제총회, 교구장 착좌식 등의 일련의 행사와 예식들을 통해 신생 교구로서 사목에 대한 열정과 교구 사제단의 형제애적 일치, 교구민들의 일치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새 천년기 한국교회의 중요한 몫을 담당할 역량 있는 교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의정부교구는 한반도의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특성, 젊은 사제단이 보여준 뜨거운 의욕, 활기찬 지역 개발 분위기 등등 모든 내적 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밝고 희망찬 교구의 미래를 전망토록 해준다. 이러한 지역적, 사목적 차원에서 의정부교구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대교구장 이한택 주교 인터뷰



“신자들이 참으로 기뻐하는
사목을 펼칠 것”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소명은 의정부교구의 당신 백성들을 기쁘게 해달라는 부탁일 것입니다. 신자들이 정말 하느님과 사는 것이 행복해서 힘껏 뛰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고 싶습니다.”

2001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된 후 3년여 만에 초대 의정부교구장으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이주교는 “가장 큰 자원은 신자들”임을 강조하고 “신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만큼 어떤 내용이든지 신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본당 신부님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사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교구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들려줬다.

10월 11일 교구장 착좌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교구장직에 취임하면서 이 주교는 특히 ‘함께 하는 교회상’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함께!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새벽 주교좌 의정부성당에서 봉헌된 취임식 미사 때에도 이주교는 공동집전 사제는 물론 신자들과도 몇 차례나 손을 굳게 맞잡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교구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신자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5일 교구장 임명 후 3개월여에 걸쳐 교구 출범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활발하게 현존하시는 체험을 통해 깊은 감

동을 받았다는 이주교는 교구신부들에 대한 두터운 신뢰감도 아울러 드러냈다.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주위의 염려도 그가 사제단에 거는 희망과 기대로 인해 기우로 비쳐지는 게 어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신부들이 신자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교회상을 의정부교구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삼아나가고 싶습니다.”

의정부교구가 지니고 있는 사목적 비전에 대해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선교적인 면에서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주교는 “그같은 관점에서 지역 개발이나 인구성장 면에서도 성장 추세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은 결코 소외된 지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한택 주교는

△1934년 출생 △1959년 예수회 입회 △1971년 사제수품, 미국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에 유학, 수학·신학 석사 학위 받음 △예수회 한국지부장, 서강대학교 교수·이사장·총장 역임 △2001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서품됐다.

“아가운동의 소금 역할에 충실한 ME”

1. ME의 역사

메리지 엔카운터(Marriage Encounter)의 앞글자를 따서 ME 라고 합니다.

메리지 엔카운터의 역사는 1950년대 말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보 신부가 착안한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문제 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던 칼보 신부는 대부분의 가정 문제가 불안정한 부부관계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알고,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 일환으로 196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최초의 ME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1966년부터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첫 주말이 1967년 8월 노틀담 대학에서 실시되었는데 그 주말에 참여했던 예수회의 척 깔라거 신부는 부부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또 사제생활에 대한 새로운 열의가 솟아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ME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교회 내에서 활기찬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후 ME는 계속 확대되어 현재 87개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6년 한국내 미국인을 위한 영어주말을 실시할 때 한국인 몇부부 참석한 후 1977년 한국어 주말을 처음 실시하였고 현재 27번째 ME 주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ME 주말의 개요

부부사랑 운동(ME)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운동으로서 원만한 혼인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차원 높게 성화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2박 3일 주말로부터 시작하며, 참가 부부들은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대화 생활과 혼인 성사의 은총과 부부성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ME 주말 동안에 부부들은 사회의 모든 혼란으로부터 해방되어 추억속에서만

간직되고 있는 부부의 인간적인 관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주말 동안 부부들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배우며, 이것은 이미 부부생활에서 경험하여 온 대화와는 달리 서로의 존재를 깊이 체험하게 해줍니다.

또한 주말이후의 대화 생활을 위해 기초가 되는 습관을 다지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부부들은 이 주말 동안에 그들의 로맨스 시절에 어떤 식으로 배우자와 대화 했었던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말이 진행됨에 따라 참가 부부들은 로맨스 시절에 있었던 배우자에 대한 개방과 신뢰감을 새로이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바로 교회와 우리의 온 이웃들로 하여금 부부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와 일치성이 예수님 사랑의 가장 좋은 표지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시 한번 인식하고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 주말은 진실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해줍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말동안 참가 부부들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부 스스로 배우자의 선량함을 재확인하게 되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 ME 주말은 주말교육, 주말피정, 주말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중에 참가한 모든 부부들은 각기 고유함과 독특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변화하는 모습도 각기 다르게 때문에 그냥 ME 주말이라고만 합니다.

3. ME의 현황과 실적

- 1977년 첫주말을 실시한 후 2003년까지 26년동안 14개교구에서 2457주말을 실시하였고 사제 1068분, 수도자 1444분, 123,924명의 부부가 참석하여 ME 주말을 참석한 분은 모두 126,436명이 됩니다.
- 현재 15개 교구에서 233분의 발표팀 사제와 500여쌍의 발표팀 부부가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55주말이 년중개최되고 있고 많은 부부들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아가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4. ME가 성공한 이유

- 전세계적으로 ME는 두가지 갈래로 발전해왔는데 수도자 중심인 National ME와 부부중심인 World Wide ME가 있으며 한국에는 worldwide ME가 주도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초창기 불모지에서 개척정신으로 발전할 때 봉사부부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꾸준히 일관성있게 부부 사랑, 부부일치를 위하여 가톨릭 교회내에서 성공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 ME운동은 부부 각자에게 성찰과 양심에 입각한 본능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매주말마다 봉사팀으로 참가하는 신부님의 사제 생활체험과 부부의 혼인생활 체험을 통하여 부부 자신들이 혼인생활에서 변화를 얻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느님의 은총이었으며 하느님의 성령님께서 부부 자신들에게 현존하셨음을 부부자신 스스로 직접 체험할 수 있기에 ME가 성공한 단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5. ME와 가톨릭교회

- 부부중심의 ME가 초창기부터 일정기간 동안 자립할 때까지는 부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ME도 가톨릭교회 내 단체이고 사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성서중심적 사목방침에 부응하고 가톨릭교회와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ME의 생명인 매일의 대화(10/10)를 복음 위주로 전환하였고 성서와 함께하는 주말(MR)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교활동을 위하여 매주말마다 참가자의 20% 정도는 비신자분들을 참가토록 하였고 참가한 비신자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유와 인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회의 전교 사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 ME와 본당신부님

- 본당신부님 신자들을 ME 주말에 참가토록 초대하여 주십시오.
- ME는 꾸르실료나 레지오와 차이가 있듯이 중견간부 양성이나 교회내 봉사자 또는 리더그룹의 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에는 부족합니다.

ME에서는 부부를 작은 교회라고 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저절로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ME는 작은

교회로서의 부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회나 신자라면 한번씩 꼭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꾸르실로나 레지오처럼 본당신부님의 추천이 있어야 참가하도록 하신다면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갈등의 부부는 신앙생활모습이나 교회 내 헌신적인 봉사적 차원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어서 참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갈등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볼 수 없지만 ME 주말에서 부부가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교회 내 좋은봉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많은 ME 부부가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 ME와 이혼전 상담

- 당초 ME의 참가기준이 혼인생활의 쓴맛, 단맛을 다 느낄 수 있는 5년 이상의 부부들을 초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동거기간별로는 1년미만 12%, 2년미만 16.0%, 3년미만 18.2%, 5년미만 19.9%, 10년미만 17.7%, 10년이상 16.2%로 초기단계인 3년미만의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46.2%에 달하고 있는 통계를 보고 사회 속에서 가톨릭교회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하여 혼인생활 기준을 없애고 누구나 ME가 필요하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이 시대 소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ME와 미래대책

- ME는 예방적 차원에 벗어나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치유적 차원으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 이혼전 부부들이 참가하는 특수주말, 청소년과 노인분들에 필요한 특수주말 등 맞춤형 주말을 연구개발하여 가톨릭 교회내에서 가정을 지키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려고 합니다.
-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아가운동”의 최첨단에 서서 작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국가톨릭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한국ME 25주년기념 모임에 참석한 봉사사제단과 봉사부부들 사진)

작성자 : 한국ME 기획분과 대표 조태중(아우구스티노) · 박애선(아가페)부부



“오름회”와 “제3기 인생”

오덕주 / 데레사 전국 · 서울 평협 부회장(서울대학교구 오름회 회장)

머리말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 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으리라. (이사야 40:31)”

20세기 전반에는 전 세계가 1, 2 차 세계대전(世界大戰)에 휩싸였고 이어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세계는 평화를 기원하는 시기를 맞았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여권(女權)운동과 지구의 파멸을 막기 위한 환경보호가 큰 화두로 대두 되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도처에서 “고령화 사회”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노인들의 사회”의 저자 피터 G. 피터슨은 21세기에 대한 모든 예측과 전망 중에서 경제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령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환갑잔치를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 옛 어른들에 비하면 요즈음 60대는 너무나 젊고 건강해 보인다. 이는 현대의학과 식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수명이 적어도 10-20년은 연장되었고 세계에서 최 장수를 누리는 일본 사회의 뒤를 바짝 따라 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에 돌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인내와 희생과 그지없는 노력으로 오늘날의 풍요를 이끌어 낸 주역들이 오늘의 고령인구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국가의 다각적인 새로운 정책과 교회의 사목적 배려가 시급하게 요망되고 있다.

피터 G. 피터슨이 고령화 사회의 경제에 대한 파급력을 논하듯이 일반인들은

고령자에 대해 대체로 경제적 관점에서 논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성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제스 브레나 LAI 아시아 지도 신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사회가 가지는 위기의식 보다는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제 3기 인생"을 위해 바티칸이 공인한 "Crescendo" 운동의 일환으로 오름회가 2004년 3월에 서울에서 발족하게 되었다.

1. 오름회 (LARK)는 어떠한 운동인가?

제주도에 가면 섬 전체에 울퉁불퉁한 언덕들이 367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를 오름이라고 부른다. 우연히도 우리 운동을 오름회라고 이름 짓게 되었다. 이는 "제 3기 인생"에 들어선 교우들이 이 시점에서 인생에 대한 좌절감과 회의로 인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품위와 특별한 가치와 인생의 새롭고도 아름다운 사명의 발견, 그리고 긴 수명을 잘 활용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찾고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좋은 기회로 삼아 하느님을 향해 계속 자신을 봉헌하면서 더 거룩하게 피어올라간다는 뜻이다. "Crescendo(크레센도)"와 "Life Ascending(라이프 아센딩)" 역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오름회는 Crescendo의 아세아 지부인 Life Ascending International 의 지부가 되어 세계연합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Life Ascending Republic of Korea의 약자인 LARK는 영어로 종달새라는 뜻이어서 종달새가 저 높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르듯 우리 여생을 하느님을 찬미하며 높이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뜻이 담겼다.)

1. 오름회의 대상

오름회의 대상은 "제 3기 인생"을 사는 가톨릭 신자이다.

2. "제 3기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 1기 - 출생에서 사회인이 될 때까지

제 2기 - 사회인이 된 후부터 은퇴하거나 지어진 책임을 다 할 때까지

제 3기 - 은퇴한 후 (혹은 책임을 다한 후)부터 타인에게 의존해야 할 때까지

제 4기 -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시기

3. 오름회의 네가지 목적

① 영 성: 영성생활을 통하여 인간적 완성과 영성적 발전으로 하느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진입한다. “제 3기 인생”은 하느님께 가장 자유롭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시기이기에 정신적 지평이 넓어지면서 성찰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② 사도직: 사도직을 통하여 “제 3기 인생” 남녀는 그들의 경험, 취미, 체력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따라 교회와 사회봉사에 참여한다.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받은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젊은 세대와 동료들의 모범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게 된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교회 그리고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다.



③ 친 교: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우정을 싹틔우고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된다. 함께 기도하며 같은 취미를 즐기기도 하고 개인적 관심사도 서로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게 된다.

④ 자기개발: 과거에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였거나 즐기지 못한 분야를 개발하여 자신의 성장을 꾸준히 도우며 문화나 사회활동과 발전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II. 오름회의 영성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시편 91:16)

“고령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고령에 도달하는 행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파스카의 신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모범이 됨으로써 과거를 더욱 잘 평가하는 진정한 기회를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제 3기 인생“에서의 여러분의 봉사는 사회와 교회 그리고 당신들 자신을 위하여 진정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각자에게 이 시기의 성공적 삶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의 유종의 미를 뜻하며, VMI (프랑스의 오름회 약칭)에 있어서의 성취는 당신이 어떠한 역경도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신이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든 또는 이혼했거나 아직 홀몸으로 있든 간에 이미 내가 말한 인생의 모든 시련 즉 질병, 고독, 이별 등에 영성적으로 기여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희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 모든 것 들 중에서도 “제 3기 인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자원을 모두 내던져 자신의 희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그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희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1982년 10월 4일 로마연설).

공자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인생은 70에서 시작한다.” 이리하여 공자는 “오름회의 최초의” 예언자“가 되었다. 다행히도 그리스도를 아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인생의 충만감을 즐기기 위하여 70세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Dptnsla 덕분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 3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티벳의 한 승려는 이렇게 썼다. “생명은 죽음에 대한 다각적 생각을 통해 정당하게 이해될 수 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부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루가복음서 1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으신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은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 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

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노을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II세는 1999년 제 3기 인생 남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의 장로로서도 나는 여러분과 만나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커다란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로서의 어려 잡다한 분야에서의 여러분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여러분의 평생 경험의 결실로서 이루어진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로 교회는 하루하루 윤택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이 시점에서 여생을 통하여 서로 도우며 최고도로 충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가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아직도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제 3기 인생’ 운동이 전 세계에서 그 사업을 발전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오름회 운동이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힘 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III. 오름회 의 조직과 운영

1. 조직

“제3기 인생” 운동의 조직은 아주 단순하다.

주요한 활동은 기초 조직에서 이루어지며, 이 조직은 단체 지도자, 정신적 카운슬러(신부, 수녀 혹은 평신도), 수명의 운영위원, 서기 한 명 그리고 회계 한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각 기초 조직은 각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으로 자체운영 한다. 회의는 일주일에 한번, 이 주일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번 등 각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데로 가진다.

각 단체는 국내본부에 등록한다. 각 단체는 각 국가에 할당된 인원수 한도 내에서 국제적 모임과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세계총회에 참가할 권한(투표권)을 가진다. 지역 혹은 국가 차원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각 차원의 회의도 가진다. 회의는 작은 사무실이 할당되는 교회나 회원 집에서 가진다.

나. 조직도

LAI 국제조직



한국 오름회 조직도(LARK)



㉔. 기초오름회 진행순서

1. 찬교시간 : 담소, 노래, 생활이야기 등의 나눔
2. 시작기도
3. 성서말씀 낭독
4. 말씀나누기
5. 이달의 주제를 읽고 나누기
6. 전 회의 경과보고 및 다음사업 결정
7. 다음회의 장소, 날짜, 사회자를 정하기
8. 마침기도
9. (모임의 성격에 따라 취미활동 및 봉사활동을 별도로 또는 이어서 할 수도 있다.)

㉕. 신규회원 가입안내

신규회원 가입은 '제3기 인생'의 남녀로 어떠한 종교 사회 또는 교육의 배경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환영하며 신입회원은 연수를 받아 본부에 등록하여 정식 회원이 된다.

㉖. 오름회 운영을 위한 도움말

교회단체 활동경험이 있는 '제3기 인생' 회원의 도움으로 회의는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며 회의 때마다 돌아가면서 사회자를 두어 회의를 신축성 있게 한다.

회원들은 이달의 주제에 관해 나누고 지난 회의 의사록과 재무보고를 읽고 전 회의에서 계획한 사업의 경과보고를 한다.

다음 회의를 위한 안건을 결정하고 회의 장소와 시간 및 다음 모임의 사회자를 정한다. 서기나 어느 회원이 다음 회의 하루 전에 회원들에게 모임을 재확인하는 연락을 한다.

처음에는 어떤 간단하고도 강력한 단체 규약을 만들어서(예 : 말많은 회원을 지지하고 수줍은 회원에게 발언을 권하고 한 두 사람이 모임의 토의를 좌지우지하는 일을 피하게 하는 등) 사후의 어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사소한 일을 그냥 넘기면 단체의 운영 혹은 존재 그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다.

㉗. 오름장의 자격

오름장은 교회단체 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본 모임에서 실시하는 오름장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오름장은 년 1회의 심화교육을 받는다.



봉사자의 직분과 신앙생활

제주교구 평협 회장 김형원(아타나시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인 1958년에 제주도 한림성당에서 어머니와 동생 3명과 함께 교리문답을 달달 외워서 '이시돌' 신화(?)의 주역인 임피제 신부님께 세례를 받았으며, 고등학교까지는 학생회 활동도 해보지 않고 주일미사나 참례하는 신자였다.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11년 동안 교회와는 거리를 둔 생활이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자였던 잼마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지만, 1980년까지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겨우 주일미사를 껴하지 않는 정도였으며, 성서를 읽거나 묵주기도를 해본 일이 없는 발바닥 신자였다.

그러던 내가 1980년 10월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직장을 옮긴 후에 신제주 성당이 설립되어 초창기부터 꾸르실료 단과과정도 마치고 레지오 활동도 하면서 사목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신앙생활에 맛들이게 되었다. 신제주 성당 최초의 남성 브레시디움인 '선지자의 모후' 창단 멤버로 들어가서 서기와 단장으로 활동했다. 6년씩이나 단장을 하면서 전단원이 18개월 동안 무결석을 기록한 일도 있었으며, 2년 동안은 매년 20명 이상을 세례 받게 할 수 있었다. 다른 브레시디움 단장 3년을 포함하여 9년 동안 단장을 하였으며 지금은 평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꾸르실료는 6년 동안 봉사자로 활동했고, 본당 사목회에서는 전례부장과 부회장, 회장으로 활동해왔다.

2001년 2월에 신제주 성당 사목회장과 제주교구 평협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낙선된 지 얼마 후에 평협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교구 사목국장 신부님이 평협회장 적임자를 물색하면서 "김 아무개가 총장선거에서 떨어지면 평협회장을 맡길 텐데..."라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를 보이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평협회장을 맡으면서 "돈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기도 드렸다. 평협의 사정은 어려웠으며 평신도주일 2

차 헌금과 교구단위 단체로부터 5-6백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 꾸려나가고 있었다. 직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회장이 돈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실정이었다. 지난 4년 동안 돈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주시는 것 같았으며, 이제는 회장이 돈 문제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평협회장 4년 동안에 제주교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일은 거의 다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창렬 바오로 주교님 금경축과 교구장 정년 퇴임식,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교구장 착좌식, 두 분 신부님의 선종, 1·2차 소공동체대회, 소공동체 팀 트레이닝, 한·일 주교회의의 10주년 교류모임에 이은 전국평협 2004년도 제3차 상임위원회의 주관 등이다.

교구장 착좌식 때 각 교구 주교님들을 위한 공항 의전 때문에 이틀 동안 공항에서 보내야 했으며, 지난 11월 16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한·일 주교회의의 교류모임 의전 때문에 4일간 공항에서 보내야 할 때에는 힘들기도 하였다. 16일 날은 하루에 공항에 도착하시는 32분의 주교님을 영접하면 되었으나 가실 때에는 3일에 나누어서 가셨기 때문에 3일 동안 공항에서 환송을 해야 했다. 공항에 있다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달려와야 하는 일과였다.

제2차 소공동체대회는 평협 주관으로 5개월 동안 준비하여 2004년 9월 5일 한라체육관에서 5천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입장식 때는 각 본당이 특색을 살려서 입장을 하였으며, 찬양, 강의, 체험사례 발표, 소공동체 미사로 이어졌으며, 미사는 전례댄스 미사여서 처음 보는 것이었고 신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지난 1년 동안 교구 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었다. 이 소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은 참여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였다.

성서번역의 권위자로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 계시던 임승필 신부님의 장례 미사와 영결식 때는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10년 동안에 친구약성서를 우리말로 완역하자마자 돌아가신,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아까운 신부님을 보내야 되는 슬픔에 많은 신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13년 동안 로마 유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성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는 성서번역을 끝내자마자 하느님 품으로 가셨으니 성서 번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돌아가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평협 주관으로 평신도 봉사자 1단계 교육과 2단계 교육을 실시해 왔다. 1단계 교육은 1998년에 시작하여 7년 동안 해왔고, 강의는 교구 내 신부님과 수녀님 및 평신도가 하고 예비 신자나 쉬는 교우들에게 기초교리를 할 수 있는 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5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수

료자는 946명이다. 2단계 교육은 2004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1단계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제2차 공의회 문헌 계시현장과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을 공부하는 것이며, 9월부터 11월 말까지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강의와 말씀 나누기, 발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평신도 봉사자 교육에 참석하여 강사를 소개하고 교육받는 신자들을 격려하였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스승이요 협조자는 우리 집사람 쟈마다. 그는 신심이 두텁고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그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자극과 도움을 받아왔다. 쟈마는 교구 여성연합회 임원과 본당 성모회장으로서 많은 내조를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본당 사목회장과 교구 평협회장의 일을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평신도로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해왔는지 반성해본다. 정신없이 직장 일과 성당 일에 매달려 생활해온 것만 같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부끄럽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 성서 공부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참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2005년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요약문)

악에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위대한 바오로 사도는, 평화는 선으로 악을 물리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힘들고 기나긴 싸움의 성과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제 살해의 참혹한 비극과 그러한 전쟁이 불러오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의를 생각할 때,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유일한 길은 바오로 성인이 말씀하셨듯이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선으로 증진하여야 할 선이며, 개인과 가정, 국가, 전 인류를 위한 선입니다.

악과 선, 그리고 사랑

인류는 태초부터 악의 비극을 겪어 왔으며, 악의 뿌리를 찾아 그 원인을 밝히고자 애써왔습니다. 악은 인간과 상관없이 세상에 작용하는 비인간적인 어쩔 수 없는 힘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악에는 자의로 악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각기, 개인의 구체적인 책임과 각 개인이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맺는 근본적인 관계가 내포된 고유한 도덕적 차원을 지닙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악은 사랑의 요구를 거부하는 비극입니다. 반면 도덕적 선은 사랑에서 생겨나며,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을 지향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편적 도덕률의 '원리'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 혼란에서 무질서와 전쟁에 이르기까지, 불의에서 폭력과 살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사회적으로 갖가지 형태의 악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 사이에서 방향을 잡으려면 인류 가족은 하느님께서 몸소 주신 도덕 가치라는 공동 자산을 시급히 보존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도덕률의 공통 원리는 개인과 민족들의 생활이 존중 받고 발전하도록 보장해 줄 더 큰 의무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세상을 괴롭히는 사회적 정치적 악들, 특히 폭력에서 비롯된 악들은 엄중하게 단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랑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땅 팔레스타인의 위태로운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계를 두려움과 고통의 미래로 내몰고 있는 듯한 우려스러운 테러 폭력 현상은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불확실과 불안의 비극적인 상황을 야기한 이라크의 비극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의 선과 공동선

모든 차원에서 공동선을 증진할 때, 평화도 증진됩니다. 모든 개인은 어떤 면에서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언제나 다른 이들의 선을 자신의 선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특별한 방식으로 모든 차원에서 정치 당국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선은 인간과 인간 기본권을 존중하고 전체적으로 증진하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족들의 권리 존중과 증진을 요구합니다. 일부 왜곡된 인간관은 공동선을 단지, 사회 경제적 행복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어떠한 초월적 목적이 없이 행복의 심오한 의미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시기 때문에, 공동선은 초월적인 차원을 지닙니다.

평화의 선과 지상 재화의 사용

평화의 선은 모든 민족의 발전과 긴밀히 연관되므로, 지상 재화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요구를 언제나 고려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이 되어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임신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으며, 누군가는 태아를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를 단죄하고, 소수민을 보호하며, 유민과 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모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세계 시민 정신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길입니다. 평화의 선은 국제 공동체가 국가적 차원의 사법 제도나 방위 체계, 고속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공공 재화에 대하여 더욱 큰 책임을 질 때 더욱 확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재화의 보편 목적이라는 원리는 빈곤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빈곤의 비극은 가난한 나라들의 외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그러한 합의가 일부 국가에 지나친 부담으로 드러날 때 이를 재검토할 준비를 갖추는 도덕적 경제적 자원 동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개발 원조를 새롭게 추진하여야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새로운 형태의 개발 자금 지원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저는 교황 교서 「새 천년기」에서 ‘사랑의 새로운 독창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많은 무력 분쟁, 극심한 빈곤으로 악화되는 전염병들, 만연된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과 같이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제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필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가 단순히 원조의 수혜자에 그치지 말고 확실하고 생산적인 나눔의 책임 있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인의 희망

악은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탱해 주는 불굴의 희망을 키웁니다. 선의를 지닌 사람들은 누구도 선으로 악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오직 사랑을 무기로 삼을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선이 악을 정복할 때 사랑이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하는 곳에 평화가 흘러넘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가 충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며, 사랑은 역사의 흐름을 선과 평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2005년 사순 시기 담화 ·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 생명을 택하는 길ियो
 오래 잘사는 길이다.”(신명 30,2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시기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와 참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신비를 되새기기 위한 영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에 더욱 경건히 귀 기울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수 있게 하는 금욕을 더욱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저는 신명기의 다음 구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주제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택하는 길ियो 오래 잘사는 길이다.”(30,20)라는 성서 구절입니다. 이 말은 모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과 맺은 계약을 받아들 이도록 권유하며 한 말입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30,19-20). 하느님의 계약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자리 잡고 오래 잘사는 길이다”(30,20). 성서의 해석에 따르면, 노년에 이르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혜와 자비를 입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장수(長壽)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시기에 이 주제에 대하여 성찰해 보도록 권유하는 것은 사회와 교회 안에서 노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더 깊이 인식하여, 노인 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지니도록 하라는 뜻에서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 결과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였

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노년’ 층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노인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여 공동체 전체에 이바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 특히 노인 문제가 두드러지는 서구 사회의 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2. 인간 생명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계명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증진하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은 병들었을 때에나, 몸이 쇠약해져서 혼자 살아갈 능력이 떨어질 때에도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늙어가는 것과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신앙의 빛 안에서 평온하게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삶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십자가의 신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노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으며, 선의의 모든 사람들도 사순시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기여를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노인들이 공동체와 때로는 가족들에게조차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여, 외롭게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단절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여론에 환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사회생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과 법률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실 지난 십년 동안 사회는 노인들의 요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의학의 발달로 통증 완화 치료가 병자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과 함께 특히 장기 입원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노년기에는 여가 시간이 풍부하여, 노인들은 이전에는 다른 절박하거나 우선시 되었던 문제들 때문에 제쳐 두었던 근본 문제들을 직시하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앎으로써 노인들은 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시간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는 것들에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 때문에, 노인들은 사회에서 각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앞서 간 사람들의 유산에 기대어 살고, 자기 민족의 문화적 가치가 자신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인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은 더욱 완전한 문명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는 서로를 풍요롭게 해 준다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와 연대를 강하게 촉구하는 사순시기는 올해 우리에게 모든 사

람과 관련된 이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끕니다.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인 이들 노인들이 늙고 병들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사고방식에 하느님의 백성마저 굴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가정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노인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고 그들을 따듯이 맞아 준다면, 공동체는 참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사순시기 동안, 모든 공동체가 노인들을 사랑으로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어미의 복중에서 나를 엮어 내시고”(시편 138[139],13 참조) “당신 모습을 닮기를”(창세 1,26 참조) 바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깨닫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과 궁극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죽음의 신비를 성찰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모든 신자, 특히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삶의 궁극적 이유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느님이신 당신 아드님의 충실한 종이신 성모님께서 만나와 요아킴 성인과 함께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바티칸에서,
2004년 9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아의 하느님 백성과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FABC)
제8차 정기총회(2004년 8월 17-23일) 메시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FABC) 제8차 정기총회를 위하여 한국 대전에 모인 우리 주교들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과 함께¹⁾ 하느님과 아시아 가정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생명 문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가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성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끝내며, 우리는 가정이 참으로 하느님께서 아시아에 주신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가정 안에 충만한 희망의 표지를 보고 기뻐합니다. 종교적 문화적 가치와 전통의 영향을 받아 많은 아시아 가정들이 가정생활의 이상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며, 생명에 대한 경외심, 자연에 대한 친밀감과 존중, 긴밀한 가정의 유대, 대인 관계, 환대, 환영의 정신, 노인 공경, 효심, 어린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같은 아시아의 가치들에서 힘을 얻습니다. 가정 안에 지속되고 있는 영성과 종교심, 혼인과 가정과 자녀의 신성함에 대한 의식은 기쁨의 근원이며, 많은 가정들을 성소의 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시아 가정들은 유연성과 인내심을 보여 줍니다. 아시아 가정은 이러한 가치들에서 힘을 얻고, 또한 이러한 가치들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토착민과 다른 종교들의 가치가 아시아 가정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에 경탄합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 간에 이루어지는 혼인은 또한 영성적 풍요로움을 얻는 기회를 주며, 이러한 혼인이 직면하는 복잡한 문화적 종교적 문제들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정이 참된 가치들을 수호해 준 데에 대하여 감사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시아 가정들의 근심을 함께 나눕니다. 새로운 현실들이 많은

1) 아시아 22개국에서 온 181명의 참가자들은 6명의 추기경들과 24명의 대주교, 56명의 주교, 그리고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들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중국 대표들의 불참을 아쉬워하는 바이다.

아시아 가정의 행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부상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문화와 더불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주의, 이기심, 탐욕을 부채질하며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주도의 세계화는 헤아릴 수 없는 빈곤과 이민을 양산했습니다. 전쟁과 분쟁도 사람들을 집을 떠나게 합니다. 가정들은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영향과 가정의 가치와 관련된 강제적인 인구 정책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이즈와 불법 마약, 포르노의 확산으로 가정들, 특히 가장 취약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과 불화의 증가는 가정의 결집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낙태와, 인간 생명을 조작하려는 다른 여러 시도들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임 사고 방식은 부부의 참 사랑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음도 통탄할 일입니다. 가정의 토대를 이루어 온 가치들이 위험 수준에 이를 만큼 소멸되고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성소 경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편부모 가정, 이혼 가정, 재혼 가정들의 복잡한 상황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과 용감하게 싸우는 여러분 아시아 가정들과 한마음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모든 가정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직 하느님의 사랑만이 생명을 강화하고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1요한 4,8),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당신 성자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1요한 4,9). 하느님의 구원 계획으로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강생하셨으며,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의 가치들이(마태 5-7 참조) 아시아 가정 안에 뿌리내리고 생명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문화는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생명을 임신에서 죽음까지 모든 차원에서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생명의 문화는 인간 생명을 파괴하고 착취하며 억압하는 세력들에 강력히 대항합니다. 생명의 문화는 책임 있는 부모 의식과, 효율성과 자본, 이익에 우선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적극 증진합니다. 생명의 문화는 토착민들과 다른 종교들이 지닌 가정의 가치들도 장려합니다. 우리는 가정들이 기도와 영성 속에서 성실하게 사랑을 나누고, 책임 있게 생명을 낳아 풍요롭게 하고 수호하는 지성소라고 믿습니다. 아시아 가정들은 사랑과 친교, 상호 봉사

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인류 가족을 형성하고자 노력할 때에, 신앙 공동체와 사회 안에 친교와 연대를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교회의 목자로서 우리 주교들은 가정의 선익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사목을 강화하여 모든 가정, 특히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가정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과 북한 교회의 가톨릭 가정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하느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우리 가톨릭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건설자로서 우리는 우리 정부, 가정 복지와 관련된 단체들, 교육 기관, 매스미디어 제작자들과 후원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구심점인 가정을 강화하는 우리와 함께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원천인 아시아 가정들을 하느님께 맡기며,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골로 3,14). 아시아 가정들은 여러분 자신, 곧 하느님께서 아시아 가정에 주신 사랑과 생명의 선물이 됩니다.

- ▲ 손병두(요한보스코) 전국평협 회장은 지난 10월 31일 청주교구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개최된 청주 가정대회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 김철중(미카엘) 전국평협·서울평협 재정분과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한건종합건설이 2004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에서 수원교구 관악성당의 시공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 ▲ 김철환(요셉) 서울평협 감사의 차남 기준(바실리오)씨가 지난 11월 15일 뉴욕시에서 치른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 ▲ 김경동(스테파노) 서울평협 부회장의 아들 현철(요셉)군이 지난 11월 13일 12시 구의동 성당에서 혼인미사를 올렸다.
- ▲ 서동호(바오로) 전주평협 회장은 9월 24일 도내 일간지인 전북도민일보에 '아름다운가정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
- ▲ 조덕(알렉산델) 이명숙(아네스) 제18대(2001.1월~2003. 10월) 한국ME 대표 부부가 지난 8월 23-28일까지 싱가포르 ME 하우스에서 열린 제29차 아시아지역 총회에서 인도 데이비드 조오지 신부와 함께 세계ME 아시아 지역 대표팀으로 선출됐다.
- ▲ 황성일(안셀모 부산 고정본당) 부산평협 부회장 겸 부산교구 가톨릭경제인회 회장이 6월 28일 크라운호텔에서 열린 부산가톨릭경제인회 정기총회에서 2년 임기의 새회장으로 연임됐다. 또한 황회장은 7월 3일 부산교구 가톨릭신문·출판인협의회(UICP/부산) 초대회장으로도 선임됐다.
- ▲ 남중화(요셉) 전 전국 평협 부회장 겸 서울 세나투스 단장은 10월 15일 부인 오영자(데레사, 66) 자매의 선종으로 상처했다.
- ▲ 최홍준(파비아노 전국, 서울평협 사무총장) 지난 12월 20일 서울성심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1월 3일 퇴원했다.

전국평협 회장단 · 상임위원 명단

직책	성명	주 소	비고	
회장	손병두 (요한보스코)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C동 5003	자) 02-574-7199 사) 02-777-2013 011-9788-1356	현 서울 회장
		e메일 bdsjohn@hanmir.com		
부회장	한홍순 (토마스)	(135-1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1-4	자) 02-542-5292 사) 02-961-4864 011-9015-5252	현 서울 부회장
		e메일 thomashanhs@hotmail.com		
부회장	이용기 (요한 비안네)	(706-0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번지 대구 MBC 문화사업부 부국장	자) 053-743-2145 사) 053-744-5400 010-4801-2145	현 대구 회장
		e메일 leevg@tgmbc.co.kr		
부회장	조종현 (베드로)	(503-802)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1동 377-22	자) 062-652-0069 011-645-3832	현 광주 회장
		e메일 petrus69@hanmail.net		
부회장	안병철 (도미니코)	(440-853)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82-3	자) 031-248-1971 016-308-1972	현 수원 회장
		e메일 abch1972@hanmail.net		
부회장	오덕주 (테레사)	(136-020) 서울 성북구 성북동 15-21	자) 02-742-7521 011-275-6342	여성연합회 회장
		e메일 womenorg@catholic.or.kr		
부회장	홍화순 (마태오)	(110-804)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4-1 현대구기빌라 8-201	자) 02-395-5566 011-254-8532	푸르실료 주간
		e메일 ultreva@chollian.net		
부회장	장무웅(요한) 김정희 (요안나 마리아)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3	사) 02-511-9901 011-9720-0809	한국 ME 대표
		e메일 mary807@unitel.co.kr		
감사	서동호 (바오로)	(560-2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80 남양황실 2-906	자) 063-221-5928 010-7193-5928	현 전주 회장
		e메일 soho1004paul@hanmail.net		
감사	박용기 (필립보)	(641-777) 경남 창원시 상남동 대동A 107-1201	자) 055-284-1231 사) 055-587-4457 011-9504-9555	현 마산 회장
사무총장	최홍준 (파비아노)	(우) 158-804 서울 양천구 목3동 318-282 401호	자) 2652-5732 사) 02-757-7851 010-3999-8053	현 서울 사무총장
		e메일 fabianoc@hanmail.net		

상임위원	김 승 선 (세레자요한)	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삼익세라믹A. 202-604 e메일 kssjohn0401@hanmail.net	자) 033-261-0121 사) 011-365-3121	현 춘천 회장
상임위원	이 정 우 (마르티노)	611-76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 연산엘지아파트 122-1401 e메일 jwlee@dage.co.kr	자) 051-757-5905 사) 051-580-5555 011-331-6227	현 부산 회장
상임위원	김 명 증 (빈첸시오 페레르)	302-791	대전 서구 월평3동 누리아파트 107-705	자) 042-485-9359 사) 016-402-9359	현 대전 회장
상임위원	변 광 수 (암브로시오)	363-933	충북 청원군 내수읍 세교2리 608 e메일 byunambro@hanmail.net	자) 043-212-1151 사) 011-483-3390	현 청주 회장
상임위원	김 용 식 (요셉)	404-806	인천시 서구 가정3동 한국아파트 301-707 e메일 kvs777@dreamwiz.com	자) 032-573-7007 사) 032-572-3789 017-266-7007	현 인천 회장
상임위원	원 규 희 (안토니오)	220-962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223번지 e메일 jaejang1470@hanmail.net	자) 033-734-1470 사) 019-282-0371	현 원주 회장
상임위원	박영조 (페렐리오)	760-260	경북 안동시 안기동 170-15 3/6 e메일 pyoungjo@hanmail.net	자) 054-852-8638 사) 054-858-6802 011-543-8638	현 안동 회장
상임위원	김항원 (아타나시오)	690-170	제주시 연동 320-37 e메일 hwkim@cheju.ac.kr	자) 064-752-9076 사) 064-754-3242 016-690-9087	현 제주 회장
상임위원	김종환 (베네딕토)	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방부 내 군종교구 평협 e메일 gpchans@hotmail.com	자) 02-521-9269 사) 02-749-1921 휴)017-679-6433	현 군종 회장

<상임단체장>

마리아사업회 (남)	칼로이 아단	카를로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1-4	02-332-1010
마리아사업회 (여)	엄선자	헬레나	100-452	서울 중구 신당2동 414-3	02-2232-2460
	홈페이지 / e메일		http://focolare.or.kr		
한국가톨릭 성령 쇄신봉사자협의회	김대균	바드리시오	151-877	관악구 신림8동 564-13	02-866-6345/6
	홈페이지 / e메일		http://www.crk.or.kr		
한국 가톨릭 경제인회	송보영	토마스 아퀴나스	100-809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02-755-7060 011-221-9965
	홈페이지 / e메일		http://cbak.org		

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오덕주	테레사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02-778-7543 011-275-6342
	홈페이지 / e메일		womenorg@catholic.or.kr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홍화순	마태오	121-220	서울 마포구 합정동 97-1	02-337-8588 011-254-8532
	홈페이지 / e메일		http://www.cursillo.or.kr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광주)	전재욱	베네딕토	501-023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센터 407호	062-227-7128 016-619-8242
	홈페이지 / e메일		http://k-senatus.info		
무염시대 세나투스 (서울)	팽종섭	그레고리오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02-776-8520 017-324-0626
	홈페이지 / e메일		http://www.senatus.or.kr		
레지오 마리에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박기탁	사도요한	700-443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교구청내	053-256-3574 016-9511-2343
	홈페이지 / e메일		http://senatus.tgcatholic.or.kr		
한국 메리지 엔카운터	장무웅	요한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3	02-511-9901 011-9720-0809
	김정희	요한나리아			
홈페이지 / e메일		http://me.catholic.or.kr			

각 교구 평협 회장

교구	성명(본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손 병 두 (요한보스코)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C-5903	자) 02-574-7199 사) 02-777-2013 011-9788-1356
대구	이 용 기 (요한비안네)	706-804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443-13	자) 053-743-2145 사) 053-744-7200 010-4801-2145
광주	조 종 현 (베드로)	503-802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1동 377-22	자) 062-652-0069 사) 062-230-6710 011-645-3832
춘천	김 승 선 (세례자요한)	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삼익세라믹A 202-604	자) 033-261-0121 사) 011-365-3121
전주	서 동 호 (바오로)	560-2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80 남양황실 2-906	자) 063-221-5928 사) 010-7193-5928
부산	이 정 우 (마르티노)	611-76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 연산엘지아파트 122-1401	자) 051-757-5905 사) 051-580-5555 011-331-6227
대전	김 명 중 (벤첸시오 페레르)	302-791	대전 서구 월평3동 누리아파트 107-705	자) 042-485-9359 사) 016-402-9359
청주	변 광 수 (암브로시오)	363-933	충북 청원군 내수읍 세교2리 608	자) 043-212-1151 사) 011-483-3390
인천	김 용 식 (요셉)	404-806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61 한국아파트 301-707	자) 032-573-7007 사) 032-572-3789 017-266-7007
수원	안 병 철 (도미니코)	440-863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82-3	자) 031-248-1971 016-308-1972
원주	원 규 희 (안토니오)	220-962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223번지	자) 033-734-1470 사) 019-282-0371
마산	박 용 기 (필립보)	641-777	경남 창원시 상남동 대동아파트 107-1201	자) 055-284-1231 사) 055-587-4457 011-9504-9555
안동	박영조 (페렐리오)	760-260	경북 안동시 안기동 170-15 3/6	자) 054-852-8638 사) 054-858-6802 011-543-8638
제주	김향원 (아타나시오)	690-170	제주시 제주시 연동 320-37	자) 064-752-9076 사) 064-754-3242 016-690-9087
군중	김종환 (베네딕토)	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방부 내 군중교구 평협	자) 02-521-9269 사) 02-749-1921

전국 교회 운동 · 단체장 · 상임위 단체

단체명	성명	본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마리아사업회 (남)(*)	칼로이 아단	카를로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1-4	02-332-1010
마리아사업회 (여)(*)	엄선자	헬레나	100-452	서울 중구 신당2동 414-3	02-2232-2460
	홈페이지 / e메일		http://focolare.or.kr		
한국 가톨릭 간호사협회	박혜자	막달레나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69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부장실	031-380-4021
한국 가톨릭 결핵사업연합회	오인정	세레나 수녀	136-02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75-12 작은 형제회 102호	02-762-8155 011-9576-7533
	홈페이지 / e메일		hcg12@catholic.or.kr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	채규태	알비노	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7	02-3144-6311~2 / 590-1320
한국 가톨릭 군중후원회	이관진	베드로	100-809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02-776-0457
	홈페이지 / e메일		http://gunjong.com		
한국 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협의회	강성령	요한보스코	135-24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5	02-451-0124 016-524-6567
	홈페이지 / e메일		http://blindmission.co.kr		
한국 가톨릭 미술가협회	최인수	베드로	151-742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	02-880-7493 017-201-3671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	최영식	마티아	137-7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의과대학 구내	02-590-1003 011-313-3381
	홈페이지 / e메일		yhs1129@dreamwiz.com		
한국가톨릭 성령새신봉사자협 의회(*)	김대균	바드리시오	151-877	관악구 신림8동 564-13	02-866-6345/6
	홈페이지 / e메일		http://www.crk.or.kr		
한국 가톨릭 경제인회(*)	송보영	토마스 아퀴나스	100-809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02-755-7060 011-221-9965
	홈페이지 / e메일		http://cbak.org		
한국 가톨릭 아동복지협의회	정태용	마르셀리노	370-882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1구 331-4	043-743-6825 011-813-2141
	홈페이지 / e메일		caritascw@hanmail.net		
한국 가톨릭 언론인협의회	김종완	스페라노	138-859	송파구 오금동 135 (주)동아종합인쇄	02-405-0555 011-254-9152
	홈페이지 / e메일		twins@donga.com		

단체명	성명	본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	오덕주	테레사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02-778-7543 011-275-6342
	홈페이지 / e메일		womenorg@catholic.or.kr		
한국 가톨릭 의사협회	나종구	다미아노	150-7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성모병원 산부인과	02-3779-1118
	홈페이지 / e메일		jgrha@catholic.ac.kr		
한국 가톨릭 학교장회	백상락	그레고리오	609-817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8-11 지산 고등학교 교장실	051-580-2611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홍화순	마태오	121-220	서울 마포구 합정동 97-1	02-337-8588 011-254-8532
	홈페이지 / e메일		http://www.cursillo.or.kr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광주)(*)	전재욱	베네딕토	501-023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센터 407호	062-227-7128 016-619-8242
	홈페이지 / e메일		http://k-senatus.info		
무염시태세나투스 (서울)(*)	팽종섭	그레고리오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02-776-8520 017-324-0625
	홈페이지 / e메일		http://www.senatus.or.kr		
레지오 마리아에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박기탁	사도요한	700-443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교구청내	053-256-3574 016-9511-2343
	홈페이지 / e메일		http://senatus.tgcatholic.or.kr		
한국 메리저 앤카운터(*)	장무웅 김정희	요한 요안나마리아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3	02-511-9901 011-9720-0809
	홈페이지 / e메일		http://me.catholic.or.kr		
MB.W 한국 공동체 추진봉사회	원유술	야고보 신부	706-825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782-2 범어동성당	053-744-1391
한국 가톨릭 농민회	정재돈	비오	150-862	영등포구 양평동1가 13-1 한특빌딩 5층	02-2635-6493 019-632-4040
	홈페이지 / e메일		http://kefm.or.kr		
한국 지속적인 성체 조배봉사자 협의회	유구영	T.아퀴나스	100-809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02-775-0716 011-249-9014
	홈페이지 / e메일		http://org.catholic.or.kr/jisok/jisok.htm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김동기	도미니코	100-809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02-778-4476 011-485-7820
	홈페이지 / e메일		http://org.catholic.or.kr/ssup/		

전국평협 분과위원장

직 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비고
기획분과 위원장	정준섭 (토마스 아퀴나스)	자)02-832-0743 휴)019-220-0743	(156-787)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707 현대아파트 104-605	
			e메일 : chung39@kornet.net	
재정분과 위원장	김철중 (미카엘)	자)02-2647-6740 사)02-333-2102 휴)011-715-2102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6 (주)한진종합건설	
			e메일 : hk@knu.ac.kr	
복음화분과 위원장	배한동 (요한)	자)053-472-7475 사) 053-950-5875 휴)011-9377-0138	(705-752) 대구시 남구 봉덕3동 1329-2 대덕1차아파트 107-406	
			e메일 : hdbae@knu.ac.kr	
교육분과 위원장	조 천 제 (베다)	자) 02-2187-5687 사) 02-566-3888 휴) 011-727-1930	(135-971)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67-6 대림아크로빌 B-1905	
			e메일 : kbk@blanchard.co.kr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이 율 식 (후고)	자) 031-384-8231 사) 02-880-7073 휴) 016-221-9625	(431-714)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현대 APT 10-104	
			e메일 : yslee@snu.ac.kr	
홍보분과 위원장	김 진 복 (필립보)	자) 031-715-7374 사) 02-460-7561 휴) 018-270-7347	(143-912) 서울 광진구 중곡동 643-1 한국천주교 중앙 협의회 경향잡지 편집부	
			e메일 : kjb@cbck.or.kr	
문화분과 위원장	김 천 수 바오로	자)031-897-6781 사)02-360-9108 휴)016-768-6780	(449-845)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 죽전택지 개발 지구 1블럭 현대홈타운 718동201호	
			e메일 : kcsp@catholic.or.kr	
가정사목분과 위원장	이 동 훈 (요한)	자)031-921-1789 사)031-902-8011 휴) 011-215-1787	(411-70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마을 건영빌라 1403-303	
			e메일 : lotuskr@unitel.co.kr	
노년분과 위원장	김 일 현 (아오스딩)	자)031-308-5940 사)031-467-4812 휴)010-7600-0020	(449-843)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858 만현마을 아이파크 501-1604	
			e메일 : inkim@daelim.ac.kr	

직 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비 고
청소년분과 위원장	박철용 (베드로)	자) 031-603-9969 사) 2194-0311 휴) 011-772-3848	(우) 463-7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삼성건영아파트 1003-202 e메일 : cvpark@ckdpharm.com	
여성분과 위원장	남 인 숙 (세레나)	자) 053-753-1954 사) 053-850-3341 휴) 011-536-9885	(706-021)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메트로팰레스 아파트 109-405 e메일 : isnahm@cu.ac.kr	
사회사목분과 위원장	조 성 갑 (베드로)	자) 02-2060-2878 사) 02-2610-0711 휴) 017-238-5043	(152-755) 구로구 개봉2동 407-11 현대아파트 121-1802 e메일 : skcho@yuhan.ac.kr	
정의평화분과 위원장	김어상 (토마스 아퀴나스)	자) 031-907-8384 사) 02-705-8661 휴) 010-4222-9877	(411-843) 고양시 일산구 풍동 417-2. 중앙하이츠빌 103동1503. e메일 : oskim@sogang.ac.kr	
도농협력분과 위원장	김기준 (비오)	자) 02-426-1289 사) 02-774-3488 휴) 011-235-1289	(134-830)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2-1. 명일 LG아파트 102동 1107호 e메일 : pius-kkj@hanmail.net	
민족화해 분과위원장	김 현 옥 (요한보스코)	자) 02-401-7766 사) 011-9261-3423	(138-768) 서울 송파구 문정2동 헤미리아아파트 211-503 e메일 : khubosco@hanmail.net	

아름다운 세상

2004. 겨울
발행인 손병두

편집인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홍보분과위원회 · 사무국
발행처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2004. 12. 31
비매품

